

新宿のニューカマー韓国人の ライフヒストリー記録集 2

신주쿠에 새롭게 이주해 오신 한국인들의 라이프 히스토리 기록집 2

新宿の韓国人100人の話プロジェクト



小泉八雲記念公園（新宿区大久保） 画：山崎隆

2010年8月25日

目次

ごあいさつ / 인사말	1
プロジェクトの概要 / 프로젝트 개요	5
<プロジェクトのキーワード 2 / 프로젝트 키워드 2>	7
「人生に寄りそうライフサイクル論」川村千鶴子	
「인생에 동행하는 라이프사이클론」	
<インタビュー 1>	11
Uさん (20代女性)「中国から韓国、そして日本」	
(2009年12月17日)、インタビュアー：河合	
<インタビュー 2>	13
金某さん (40代、男性)「貿易業での成功を夢見て」	
(2010年3月4日)、インタビュアー：堀内	
<インタビュー 3>	15
Bさん (30代、女性)「日本の生活に満足」	
(2010年3月13日)、インタビュアー：ソン	
<インタビュー 4>	20
OYさん (20代・男性)「男同士の約束」	
(2010年3月30日)、インタビュアー：武田	
<インタビュー 5>	24
KJさん (30代・男性)「一目惚れ」	
(2010年4月1日)、インタビュアー：武田	
<記録集1の感想 1>	28
「韓国は近くてとても遠い国」武田香織	
<インタビュー 6>	29
Mさん (30代・男性)「どの国でもいいところ・悪いところはある」	
(2010年4月1日)、インタビュアー：若園	

<インタビュー 7>	31
PYさん（30代・女性）「チャンスの女神の前髪」 (2010年4月5日)、インタビュアー：武田	
<インタビュー 8>	35
ヨンさん（40代・男性）「世界と日本のゲートウェイを作る」 (2010年4月13日)、インタビュアー：渡辺	
<インタビュー 9>	40
Nさん（30代・女性）「留学、結婚を経て、日本に暮らす」 (2010年4月16日)、インタビュアー：藤田ラウンド	
<インタビュー 10>	44
Sさん（20代・女性）「残りの大学生活でやってみたいのは英語の勉強」 (2010年7月5日)、インタビュアー：河合	
<記録集1の感想 2>	47
「ナラティブへのギャップと感想」 中島広美	
<インタビュー 11>	50
Kさん（30代・男性）「日本で研究者に」 (2010年7月8日)、インタビュアー：河合	
<インタビュー 12>	53
Rさん（20代・女性）「スペインにも留学したい」 (2010年7月13日)、インタビュアー：河合	
<インタビュー 13>	56
LSさん（20代・女性）「懐かしい町並みを残している国 にっぽん、 たくさんの事を見て、いっぱい体験してみたい国 (정겨운 나라 일본, 많이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은 나라)」 (2010年7月17日)、インタビュアー：李（韓国語）	
<インタビュー 14>	59
J・Eさん（20代・女性）「理系界の女性研究者を志す」 (2010年7月18日)、インタビュアー：吳（日韓バイリンガル）	
<私のナラティブ：自分と新宿区との関わり>	62
<나의 내러티브:신주쿠구와의 관계>	
一心の癒しの場所、コリアンタウン—吳 世蓮 —마음의 휴식처, 코리안타운— 오 세연	

<インタビュー 15>	66
Hさん（20代・女性）「日本と韓国の関係をもう一歩進めたい」 (2010年7月23日)、 インタビュアー：藤田ラウンド	
<インタビュー 16>	70
PHさん（40代・女性）「いつでも帰るという他国から、わが子が育つ国になった日本、これからは賢く日本を満喫し、子どもたちも両国の良さを学んでほしい。（언제든 돌아갈 타국 땅에서 내 자녀들이 자라는 나라가 된 일본）」 (2010年8月7日)、 インタビュアー：李（韓国語）	
<インタビュー 17>	74
JOさん（40代・女性）「日本語が大好きでもっと本場の日本語を学びたい一心で留学、今は韓国語講師として言語への研究意欲を燃えつくりしている（일본어가 너무 좋아, 좀더 실전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일본 유학을 결심. 지금은 한국어 강사를 하면서 언어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박사논문 연구 중）」 (2010年8月7日)、 インタビュアー：李（韓国語）	
<インタビュー 18>	77
李某さん（30代、男性）「ジャパニーズドリームの可能性に賭けて」 (2010年8月12日)、 インタビュアー：堀内	
スケジュール / 스케줄	80
プロジェクトメンバー / 프로젝트 멤버	81

ごあいさつ

新宿にいる韓国人の話を聞いてみませんか？

この冊子は『新宿のニューカマー韓国人のライフヒストリー記録集』の第二号です。今回の記録集には全18人のニューカマー韓国人のインタビューをまとめました。今号では日本語によるインタビューだけでなく、韓国語のものや両言語が混ざって使われているものもあります。インタビューの雰囲気がさらに伝わりやすくなつたのではないか。どうか。

また、プロジェクト全体をより理解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に、インタビューに加えて、プロジェクトのキーワードとして「人生に寄りそうライフサイクル論」、そして「私のナラティブ」と題した、プロジェクトメンバー自身による新宿と自分についての語りも掲載しました。それぞれのインタビューをより深く理解するためにきっと役立つことでしょう。

さて、前号の『記録集1』（本プロジェクトのホームページで現在も公開中です）は、2010年5月に発行され、既に多くの方から好意的な反響をいただきました。そのなかでも地域や新宿に関心のある日本の方々から「こんな人がいるんだ…」「歩いている韓国人に親しみがわいた」など、プロジェクトの意図が伝わったのを感じる声が寄せられ、率直に嬉しく感じています。また「大学で異文化理解の授業の教材として読みました」「韓国語の勉強に使っています」のようなご活用方法もお知らせいただきました。地域だけでなく幅広い方々の学習に役立つていてる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本プロジェクトの広がりを感じています。

この他に、自分もニューカマー韓国人と言う方からも「実はあまり他の韓国人の話を聞くことはないので面白かった」という声や「他の韓国人の話を読むのは日本語の勉強に良い」という意見もありました。こういった読者からの声をプロジェクトメンバー一同とても励みにしています。今号では特に『記録集1』の読者から寄せられた感想を二つ掲載し

てあります。ぜひ読後には、冊子に挟んである読者カードを記入してご返送下さい。もちろんメールでも結構です（宛先は冊子の最後のページにあります）。

なお、プロジェクト全体の詳細はホームページ上にも掲載されています。興味のある方はアクセスしてみて下さい。

今後も全部で 100 人になるまで定期的に発行していきます。

お楽しみに！

2010 年 8 月 25 日
研究代表 渡辺幸倫

このプロジェクトは、トヨタ財団 2009 年度研究助成（D09-R-0422）『新宿のニューカマー韓国人のライフヒストリー記録集の作成—顔の見える地域作りのための基礎作業—』（2009 年 11 月～2011 年 10 月）の助成を受けています。
(<http://koreannewcomersintokyo.web.officelive.com/default.aspx>)

인사말

신주쿠에 사시는 한국인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책자는 “신쥬쿠에 새로이 이주해 오신 한국인 여러분들의 라이프히스토리 기록집” 제 2 호입니다. 이번의 기록집에는 전부 18 명의 한국인의 인터뷰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인터뷰만이 아니라 한국어나 또는 둘 다의 언어를 사용한 인터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뷰의 분위기가 더욱더 잘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번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돋고자 프로젝트 멤버들이 직접 신쥬쿠와 자신들의 이야기로 엮은 프로젝트 키워드 “인생에 함께 동행하는 라이프사이클론”, 그리고 “나의 내러티브”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습니다. 각각의 인터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번의 “기록집 제 1 호” (현재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는 2010년 5월에 발행되어 많은 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쥬쿠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던지 “길거리에서 보는 한국인이 친밀하게 느껴진다”라는 등의 이번 프로젝트의 의도가 잘 전해진 감상을 듣게 되어 솔직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이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수업교재로서 읽게 되었습니다” 라던지 “한국어 공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기록집에 관한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등, 폭넓게 활용되는 것을 알게 되어 이번 프로젝트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신도 새로이 이주해 온 한국인이라고 밝힌 분에게서 “실제로 다른 한국인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미있었다”

라는 목소리나 “다른 한국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일본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독자로부터의 이런 의견은 프로젝트 멤버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특별히 제 1 호를 읽으신 독자로부터의 감상 2 편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는 책자 사이에 끼워져 있는 독자카드를 작성하여 보내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물론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소는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총 100 명이 될때까지 정기적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0년 8월 25일
연구대표 와타나베 유키노리

이 연구는 도요타재단으로부터 연구조성프로그램의 조성금(조성번호 D09-R-0422) 『신주쿠에 새롭게 이주해 오신 한국인들의 라이프 히스토리 기록집 작성—얼굴이 보이는 지역사회만들기 기초작업—』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간 :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0월)
(<http://koreannewcomersintokyo.web.officelive.com/default.aspx>)

プロジェクトの概要

多文化・多民族化する日本の地域社会で、住民同士のつながりをどのように作っていくのかが重要な課題となっています。特に新宿区では韓国人ニューカマーが大きな存在感を持っているものの、地域の人々との接点は必ずしも多くなく、「顔の見える関係」という地域作りの基盤が弱いといわれています。

本プロジェクトでは 100 人の韓国人ニューカマーに一人一時間程度のライフヒストリー・インタビューを行い、その内容を本人の同意のもと、定期的に印刷物・ホームページで公開し自由に共有できるようにします（インタビュー方法の詳細については、『記録集 1』の武田里子「インタビュー調査について」をご参照下さい）。重要な社会の構成員としてインタビューされる人々の地域社会への所属意識向上が期待できるとともに、受け入れ社会側には「地域にいる『韓国人』も、かけがえのない人生の一時期を、同じ地域空間を共有しながら生きている」という気づきが可能となるのではないかでしょうか。

このプロジェクトの理論的背景には、人生を語り／聞くことで世界観を作っていくという物語（ナラティブ）理論やライフサイクル論などがあります。本プロジェクトは、インタビューを通して、関係する全ての人が自己を肯定しながら社会を理解できるようにな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人と地域のつながりを作る手がかりを得ることが本プロジェクトの目標です。

프로젝트 개요

다문화, 다민족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지역사회는 주민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신주쿠는 한국인 이주자가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의 주민들과의 교류가 적어 “얼굴이 보이는 관계”라는 지역사회를 만들기위한 기반이 취약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인 이주자 100 명에게 한 시간 정도의 라이프 히스토리 인터뷰를 하여 본인의 동의하에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인쇄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인터뷰 방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기록집 1』의 타케다 사토코(武田里子) 「인터뷰 조사에 관하여」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로 인해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의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 측에는 “지역사회에 속한 한국인 또한 인생의 소중한 한 시기를 같은 지역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인생에 대하여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해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내러티브)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모든 분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짐과 동시에 사회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사람과 지역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그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プロジェクトのキーワード 2＞

人生に寄りそうライフサイクル論

川村千鶴子

ライフヒストリーの物語＜ナラティブ＞に耳を傾けることは、他者の「人生」に寄り添うことであり、想像を逞しくして、その人生を共有することにもなります。国境を越える人々の体験には、さまざまな困難が伴いますが、それらの克服の過程からは、その人の精神発達や人格的な成長を感じ取ることができます。

アイデンティティを学問的に概念づけたエリック・H・エリクソンは、人の精神発達や人格発達といったことは、生まれてから死ぬまでの長い人間の生涯全体のテーマであることに着目しました。鑑幹八郎によれば、エリクソンの発達論の有効性とその重要な意義は、人間生涯の展望の中で発達をとらえたことにあり、これをエリクソンは、「ライフサイクル論」と呼んでいます。

人の移動と人間発達、そしてライフサイクルに視座をもち、出産・保育・教育・就労・定住・医療・老後の現場のアクチュアリティに迫ってみると「よくがんばっているなあ」という共感が沸いてきます。街の表層からは、見えなかった部分、つまりそれぞれの移動に伴う親密的な世界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ます。

たとえば、多文化・多民族の妊娠と出産とケア、保育園空間から創出される協働の世界、外国系児童 6 割の公立小学校と言語施策など、人間発達と移住とは大きな関わり合いがあることが認識できます。それに、日本語学校のこと、留学のこと、エスニック・ビジネスの起業と展開、まちづくりへの参画などを聴いているとわくわくするような自己実現のプロセスを感じることもあります。新宿はこうした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現象を先進性をもって明示してくれる「多文化の磁場」でもあります。

このように人のライフサイクルにそって人間発達をみてみると実に多くの共通テーマが存在します。妊娠・出産・子育て、受験と塾、留学、学生生活とアルバイト、恋愛と家族、就職と起業、結婚と離婚、嫁と姑、親戚付き合い、信仰と祈り、介護と老後の幸せ、葬儀のお墓など生から

死へのライフステージです。ライフサイクルの過程には、「ケア」の概念が潤滑油のような役割をもっていることも感じられます。ケアワークの負担をだれが担っているのかといったジェンダーの視点も生まれてきます。家族という親密圏のなかでの「市民」とは何かという政治性も感じられるようになります。

もっとも新宿に定住する者もあれば、通過点としてさらに海外に拡散する場合もあります。いづれにしても「新宿」は第二の故郷（ふるさと）となっているのですね。

このように人生に寄り添うことの効果は絶大です。ライフサイクル論は、多元価値社会での分断を防ぐ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貧富の格差、民族の格差、障害の有無による格差など、社会の分断を防ぐうえで、お互いの顔が見える関係性を築いていく努力は、大切なことだと感じています。

参考文献

- ①鑑 幹八郎（たたら みきはちろう）著『アイデンティティとライフサイクル論』2002年、ナカニシヤ出版
- ②斎藤純一著『親密圏のポリティクス』2003年、ナカニシヤ出版
- ③川村千鶴子編著『多民族共生の街・新宿の底力』1998年、明石書店
- ④川村千鶴子、近藤敦、中本博皓編著『移民政策へのアプローチ—ライフサイクルと多文化共生—』2009年、明石書店

<프로젝트 키워드 2>

인생에 동행하는 라이프사이클론

카와무라 치즈코

라이프히스토리의 이야기<내러티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타인의 삶의 곁에 다가가는 것과도 같으며, 상상력을 강하게도 하며 그 인생을 공유하게도 합니다. 국경을 건너와 생활하는 사람들의 체험담에는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람의 정신적인 발달이나 인격의 성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릭.H.에릭슨은 아이덴티티를 학문적으로 개념화한 사람입니다만, 그는 사람의 정신발달이나 인격발달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평생에 걸친 테마라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타타라 미키하치로우 (鑪幹八郎)에 의하면 에릭슨의 발달론의 유효성과 중요한 의의(意義)는 인간의 삶 전체에 걸친 발달을 다룬 점에 있으며 에릭슨은 이것을 “라이프사이클론(論)”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移動)과 인간발달 그리고 라이프사이클에 초점을 두고 출산, 보육, 교육, 취직, 정주(定住), 의료, 노후의 생동감 넘치는 현장을 들여다 보면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의 걸모습만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즉 가지각색의 이동(移動)과 함께 하는 친밀한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다문화/다민족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 보육원으로부터 창출되는 협력의 세계, 외국인 아동이 60%를 차지하는 공립초등학교와 언어정책 등, 인간발달과 이동은 서로 크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어학교에서의 이야기, 유학중의 이야기, 에스닉(ethnic) 비지니스를 시작하거나 전개하는 것, 마치즈쿠리(지역사회활성화)에 참가하는 것 등, 듣기만 해도 두근거리는 그러한 자기실현의 과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신쥬쿠(新宿)는 이러한 다국적 교류의 현상을

선진적으로 보여주는 “다문화의 자기장(磁氣場)” 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서 인간발달을 보면, 실제로 많은 공통 주제가 존재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수험과 학원, 유학,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 연애와 가족, 취직과 기업(起業), 결혼과 이혼, 며느리와 시어머니, 친척과의 교제, 신앙과 기도, 간병과 노후의 행복, 장례후의 묘지 등 생에서 죽음까지의 인생무대입니다. 라이프사이클의 과정에는, 「CARE」의 개념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살피는 일의 부담을 누가 담당하느냐라는 젠더(Gender)에 관련된 시점도 생겨납니다. 가족이라는 친밀권 안에서의 「시민」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치성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쥬쿠에 정주해서 사는 분도 있지만, 이곳을 통과지점으로 삼아 더 나아가 세계로 확산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신쥬쿠는 제 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함께 동행해 나아간다는 것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급니다. 라이프사이클론(論)은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 민족의 격차, 장애의 유무에 따른 격차 등, 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서로간의 얼굴이 보이는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 ① 鎌 幹八郎 (タタラ ミキハチロウ) 著『アイデンティティとライフサイクル論』2002년、ナカニシヤ出版
- ② 斎藤純一(사이토 준이치)著『親密圏のポリティクス』2003년、ナカニシヤ出版
- ③ 川村千鶴子編(카와무라 치즈코)著『多民族共生の街・新宿の底力』1998년、明石書店
- ④ 川村千鶴子(카와하라치즈코)、近藤敦(곤도 아츠시)、中本博皓(나카모토 히로쯔구)編著『移民政策へのアプローチ—ライフサイクルと多文化共生—』2009年、明石書店

◇ インタビュー 1 ◇

Uさん（20代女性） 「中国から韓国、そして日本」

2009年12月17日、中国吉林省延辺出身、大学生、日本滞在歴4ヶ月
インタビュアー：河合優子

◇ 日本に来日するまで ◇

Uさんは、1985年、中国吉林省延辺朝鮮族自治州で生まれた。両親が9歳のときに韓国に働きに行つたため、祖父母に育てられた。中国生まれだが、民族学校に通い、コリア語で教育を受けたため、コリア語には不自由することなく、さらに中国語（北京語）も話すことができる。高校卒業後、両親のいる韓国に移り住み、韓国南部の大学に入学して、日本語を専攻した。大学で日本語を学ぶことにした理由としては、「日本が好きですから。日本文化とか日本料理とか、日本が好きですから、日本語を選びました」。日本語の優しい響きが好きだったという。韓国では、中国生まれということで、無視されたり、差別的なことばを使われたりしたことわざがあったそうだ。現在、国籍は韓国である。大学卒業後、2009年8月に来日した。

◇ 日本に来日してから ◇

新大久保（大久保地区）に住み、そこの日本語学校に通つて日本語を勉強している。年間の授業料は70万円で、これは両親が負担してくれた。新大久保に来たのは、延辺のころの友人の紹介だった。この友人は、中国から来日し、すでに5、6年新大久保に住んでいるため、いろいろと日本での生活の面倒を見つめているという。新大久保は韓国の人が多く、韓国とあまり変わらないという印象だったそうだ。まだ来日したばかりで、日本語があまりできなくても、バイトしたり生活できるという点で、新大久保はUさんにとって非常によい場所だ。自分で韓国料理の店でバイトを見つけて、午前中は日本語学校で3時間半日本語の勉強をし、午後は友達と会つたり、生活費のためにバイトをしている。

来日して間もないため、まだ日本人の友人はいない。まだ新大久保以

外の場所にもほとんど行ったことがないという。日本語は日本語学校とバイトで使うくらいだ。日本語学校には中国人の留学生も多いので、韓国に移住して忘れてしまっていた中国語を思い出しつつあるという。家族と離れ、一人暮らしをしている日本での生活については、「全部一人だけだから寂しいし、家族にもちよっと会いたいし。一人だけだから、何でも一人で全部します。それがちょっと大変」だという。

◇ 将来について ◇

とりあえず日本語学校で2年勉強し、その後のことはまだ考えていないう。将来はできれば日本で就職してみたいそうだが、韓国にある日本の会社に就職する、もしくは、日本語、中国語を生かして、韓国の会社で通訳として働いてみたいという希望もある。さらに、韓国料理の食材や化粧品などを日本で売るような、インターネットショッピングの会社を立ち上げてみたいともいう。

結婚はすぐには考えていない。自分の仕事を見つけ、余裕ができたところで考えたいという。相手は、韓国の男性にだけにこだわらず、アジアの人であれば、中国、台湾、日本など国籍を問わずどこの人でもいいという。ただし、「アメリカ人はちょっと・・・」なのだそうだ。Uさんに近い容貌の人に親近感を感じるようだ。

今後、日本以外の外国へ行ってみたいか、という質問に対し、どこかに行くのは「自分の運、運命ですから、希望はありません」、「私の仕事、勉強をするだけ」と語る。生まれ育った中国から韓国へ行ったのも、韓国から留学で日本に来たのも運であり、チャンスがあったからだった、とUさんは考えている。今後もチャンスがあればどこか別の場所へいくかもしれないが、今のところ特に希望はないという。とにかく今は、住んでいる日本の生活に慣れ、人と会って勉強したいのだそうだ。

＜インタビュー 2＞

金某さん（40代、男性） 「貿易業での成功を夢見て」

2010年3月4日、固城（コソン）出身、貿易会社勤務

滞日歴：通算約22年

インタビュアー：堀内康史

◇ 来日の経緯 ◇

来日のきっかけは、韓国で大学生だった当時は、学生運動も盛んで混乱がつづいており、社会の閉塞感などから、とにかく外に出たいという気持ちで日本に来た。日本には、おじ家族がおり、他の外国にはつてがなかったので日本以外の国を行き先として考えることはなかった。

◇ これまでの日本での生活 ◇

1987年に日本に来てからは、2年ほど日本語学校などに通い、90年に首都圏にある公立大学に入学した。その後、同じく首都圏にある国立大学の大学院に進んだが、修了はしないまま、ジャーナリストの仕事を本格的に始めた。フリーのジャーナリストとして、日韓以外のアジアの国にも出向き取材をし、自分の取材した映像がテレビで放映されるなど、やりがいのある仕事ではあった。しかし、収入は安定せず、なおかつこの間日本人女性と結婚し子どものできた金某さんは、2年間でこの仕事はやめ、転職することになった。

◇現在の仕事について◇

その後、家計を安定させるため新聞配達の仕事をしたり、翻訳会社に勤めたりと、試行錯誤をしながら、2002年に自身で起業し、服飾関係の貿易を生業とす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この仕事も事業の好調不調の差が大きく、安定して家庭に収入を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が続いていた時期に、家族とすれ違いがおこり離婚することになった。

その後も、自身のこの貿易会社は厳しい経営状況が続いていたので、2008年に休業することにした。現在は、韓国系の企業に雇われて、今までの仕事で得た経験をもとに、3人で、年間億単位という規模の大きい

貿易の仕事をしている。ちなみにこの大久保に事務所を構えたのは、この会社の東京支社長が日本語ができないため、韓国語だけでやっていくるという点も、大きな要因であったという。

◇ 日本は住みやすいか? ◇

金某さんにとって、日本は住みやすいか住みにくいかと聞かれたら、住みやすい、という。東京だからというのもあるかもしれないが、個人のプライバシーに深くかかわろうとしない良さを感じているという。仕事上は外国人ということで当初は信頼してもらえない部分もあるが、飲み屋でもどこでも、自分の名前を言って、「えっ、何だお前外国人か！？」と言って逃げるような人間は今までそんなにいなかつた、ということもあり、日本の社会のある種の寛容さを感じているようである。

◇ 将来の見通し ◇

今後の見通しとしては、韓国より日本に人脈や生活の基盤があるので、おそらくこのまますっと日本で生活していくことになりそうだという。その際、生活の安定や仕事上の便宜を考えると、ビザや国籍についてもいろいろ悩むことがあるという。「国家っていうことは結構悩ましいテーマでもあったけれども、別に俺が背負わなくても背負う人はたくさんいるらしいし、背負って行きたいとも思ってないんで。だから別に日本の国籍をとるから楽だとかそういうことはないんだけれども、まあ少なくとも永住は取るだろうし、あるいは場合によってはもう日本国籍の取得も考えてはいる」という。

そしていつか貿易の仕事を辞めるとしたら、食べ物屋さんをやってみたいという夢がある。あるいは、日本の田舎で「半農半X（エックス）」という感じで暮らしていけたらいいなとも思い描いている。

◇ インタビュー 3>

Bさん（30代、女性）「日本の生活に満足」

2010年3月12日、釜山出身、大学院生、日本暦8年目

インタビュアー：ソン・ウォンソク

◇ 日本は留学先の一つとして選択した ◇

Bさんは1978年生まれの31歳の女性。現在都内私立大学大学院で法学修士課程2年。今年（2010年）博士課程への進学が決まった学生だ。日本に他の家族や親戚はなく、都下で一人暮らしをしている。家族は自営業を営むご両親と大学院生の弟が釜山に住んでいる。2002年、韓国の4年制大学で経営学科を卒業したBさんは、韓国で6ヶ月ほど日本語を勉強して、10月に東京にある日本語学校に入学することで日本での生活を始めた。来日してから新宿にある日本語学校に1年半通った後、都内の国立大学に進学した。

留学を考えたのは、「大学卒業する時はやりきれなかったことに対する後悔みたいのがあった」からだ。卒業する前に留学に行ければと思い、3ヶ月ほど留学してもいいかと家族に言ったら、はじめは反対された。お母さんは3ヶ月なら留学ではなく旅行なので、留学するならばちゃんとやれと言われた。それで、まず卒業前に1ヶ月ほど日本を旅行した。当時は留学先として日本のほかに中国やアメリカも考えていたが、中国は両親の「危ない」というイメージから反対され、アメリカは「心理的に遠すぎる」と言われ、日本に決めた。どこに行きたいというよりも、「漠然と留学に行きたいという気持ちが大きかったので、日本で妥協した」。

◇ 外国人であることが法学部選択の契機に ◇

進学に関しては、はじめは大学院に入ることも考えたが、願書を出すタイミングを逃したこともあり、学部に入学することにした。学部は法学部を選択したが、それは自分が日本で外国人として生活した経験が契機となった。外国人になってから「すごい、暮らしと法律と関わっている」と気づいた。外国人登録をはじめ、外国人だからやることがたくさんあった。

◇ アルバイトは文化の学び場 ◇

アルバイトをしながら、日本人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学んだ。たとえば両手の人差し指を交差させて「お勘定をお願いします」を表すジェスチャーは日本に来ないと分からぬ。外国語はその国に行かなくても勉強はできるが、行かないと分からぬことがあるのはバイトをしてみて感じた。

韓国で仕事をしたことがないので正確に比較できないが、職場の雰囲気も違うのではと感じる。たとえば、韓国では仕事中にもプライベート電話にも出るが、日本ではやってはいけないなという暗黙のルールがあるようだ。「韓国でもやりすぎるとひどくないかともい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それに対して悪いとは思わないが、日本では厳しいみたい」。

韓国と似ているところもある。昼ごはんを食べに一緒に行くと学生だからといっていつもおごってくれる。それが負担で行かないこともある。それは韓国と同じ。韓国では、日本では割り勘をするというイメージや認識があるが、日本に来てみたら、そうでもなかつた。韓国と同じく人によって違う。韓国ですべての人がそうでないように日本でも人によって違う。

プライベートなことを人に言うかどうかに関しても日本も韓国と同じように思える。自分は韓国にいた時もあり人にプライベートなことを聞いたりしなかつたので、日本に来てもっとそういう雰囲気・文化じゃないで聞かなくなつた。だから時に「日本の文化に馴染んでいる」といわれる。だが、まわりの韓国人の中には上手く聞く人もいて、相手の日本人もよく答えてくれる。日本的人はとても「受動的」と思える。中にはそれを期待する人もいるみたい。「聞いてほしい、聞いてくれ」みたいな。相手が困っているのにこっちが無理に聞くのは失礼ですが、普通は喜ぶ。

◇ 「内の人」と「外の人」をはっきり分ける日本人 ◇

日本の大学生と韓国の大学生を比較すると、韓国では先輩と後輩の区別は学年で決まるが、日本の大学生は「内の人」と「外の人」がはっきりしている。日本は自分が属するサークルやクラブで決まる。同じ学部

であっても自分のサークルやクラブの組織の知り合いじゃないと他人になる。そういう違いがある。自分もサークルをやって、「日本は組織文化だなどすごく感じた」。

ゼミも同じ。ゼミ生はよく団結する。O BとかO Gとかの関係もきちんとしている。だからサークルやゼミに入らないと「所属感がないし、友だちもいない」ので、組織に入るのが「本当に大事」。組織に入らなかったら一人ぼっちになる。「存在感がゼロ」かも。

学生は組織の構成員として所属感から「安心」する。また「忠誠心も必要」。学部の場合はサークルが中心になるが、何でもそれに合わせて調整する。そういう意味で忠誠である。サークル活動を中心に動いている人たちはそれを中心にバイトなどのスケジュールを立てる。忠誠心を持っている人はお互いに団結力も強い。お互いに面倒を見、安定している。だからそこに所属しようとする。

だが、Bさんは大学のサークルを1年でやめた。2年生になると、サークル活動を運営する執行部になる。これは、クラブ活動中心の生活をしないといけないことを意味する。でも、勉強もアルバイトもしないといけなかった。3つに同じくらいの重みをおきたかったが、やっていける自信がなかった。サークルをやめてサークルの人との関係も途切れた。同じサークルだった人1人、2人とは連絡をとっているが、サークルをやめてからはゼミと授業で知り合った人と友だちになった。

◇ 大久保は日本人の友だちに韓国を紹介する異文化交流の場 ◇

現在の生活は学校とアルバイトがほとんど。大久保は来るとしても月1回くらいであまり来ない。韓国の食材はネットで買っているし、韓国の友だちと一緒に来たりもしない。日本で生活した初期には定期が新大久保を通ったので、よく降りたが、違うところに住むようになってからはあまり来なくなった。韓国人だから来るというより、日本人と食事をする時に「韓国人なので連れて行ってくれ」と言われることがある。しかし大久保に来ると、自分もほとんど分からぬのに案内役になる。「なんていうかな、日本の友達に韓国を紹介する異文化の交流する場みたいなところ」になっている。

その中でも大久保の変化を感じる。以前は、商店は多かったが韓国の

田舎のような雰囲気もあった。当時は「外国人のための町」という雰囲気だったが、韓流以降、飲食店や写真集を売っている店も増え、最近は「日本人相手に何かを売ろう」とする雰囲気に変わった。以前7、8年前までは韓国料理屋もあまりなかったので大久保に来ないといけなかった。そして小さい店でジャジャン麺を食べたりしたが、最近は韓国料理屋も増えたし規模も大きくなったりし、入ったら芸能人の写真などが張られている。

◇ 日本の生活には満足している ◇

Bさんは将来、仕事があるところに住むつもりだ。そこは日本、韓国、そして他の外国でもいい。自分は日本に来て、これがどういう結果を生むかは分からぬが、韓国にいたらできなかつた経験をたくさんしたので「よかつた」と思つてゐる。韓国の友だちを見ると無事に卒業していゝ仕事見つけて、今はみんな結婚して、「ドラマみたいな人生」を送つてゐる。

いま日本の生活に慣れて「不便もなく満足」している。不便だったことは、日本に来た当初、韓国のようなオンドルがなく、エアコンを暖房で使つてゐたので空気が乾燥して、最初の冬は風邪の思い出しかない。それと、花粉症で日本生活が「長いな」と思つたりする。食べ物は、はじめはしょっぱいと思ったが、今は大丈夫。食事は和食が多い。韓国から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を送つてもらつてゐる。

日本語に関しては、韓国語と日本語が似ていて初めの頃は「手軽に接する」ことができたが、それがむしろ「穴」になつてしまふのでは思つてゐる。似ているだらうと思って使つた場合に、日本では逆の意味でとらえる場合があつたり、あるいは状況によつて使い方が違つたりすることもある。そういう面で大変。これは違うなと思つてもはつきりは分からなくて、日本人にきいてみたりするのがだんだん増えていくようだ。だから、言語の勉強は本当に「限りがない」というか、「きりがない」と感じてゐる。

韓国には年一回くらい1、2週間帰る。帰ると親に「早く帰ってきて」と言つられる。今年で8年目だから、もう十分ではないかとこの間言つられた。

日本社会に対して「変化を恐れないでほしい」と思っている。韓国の場合には、まず変えてみて、またその状況に応じて「変えていければいいじゃない」という雰囲気ならば、日本はいろんな可能性を取り上げてここに進もうかあっちは進もうか、いつも悩んでいるようだ。韓国の方のやり方が100%良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し、それなりに危険性は高いが、社会の変化が多様である。だが、日本はそれぞれ主張ばかりやっていて、「チャンスを逃してしまう」場合がある。その時代に合わせて変えていく必要があるのに、主張だけやっていて、後になって、「ア、こういう風にやればよかった」と後悔することが時々目に見える。特に最近は社会の制度のほうを勉強して、研究会や検討会は毎日やっているのに、結果が出ない。そういうのを見たらちょっと「変化を恐れずに大胆に行動に移っ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日本の社会を見ると活気がないようだ」と日本に対する要望を述べた。

◇ インタビュー 4>

OPY さん（20代・男性）「男同士の約束」

2010年3月30日、蔚山（ウルサン）出身、韓国系企業勤務、日本在住6年

인터ビュー：武田里子

◇ 略歴と家族 ◇

OPYさんは韓国南部の工業都市・蔚山の出身。父親は地方紙の新聞社の幹部、母親は会社経営という比較的恵まれた家庭の長男として1981年に生まれた。姉と弟の3人きょうだいである。弟も3年ほど日本で暮らしたことがある。2009年8月、現在働いている会社でアルバイトをしていた1つ歳下の韓国人女性と結婚した。

教育熱心な父からは、「将来の選択肢ができるだけ多くするために勉強が必要なんだ」と言われて育った。そのおかげで自分は、今、こうして日本で働いていられるのかもしれない。でも、「半端じゃない」韓国の受験競争のあり方は、そろそろ見直す必要があると感じている。

OPYさんは、小学生の頃からの夢があった。それはホテルの支配人になることだった。理由は「カッコよく見えた」から。高校は外国語専門学校に進み、英語を専攻した。大学はホテル学科のある大学に進学するつもりだった。ところが、なぜかOPYさんが受験した1999年はホテル学科の人気が高く、合格するには成績がギリギリだったので断念した。専攻を変えたが、幸い奨学金がもらえる大学に進学することができ、在学中に兵役を終わらせた。

1997年の通貨危機は、韓国では政府がIMFに援助要請をするほど深刻なダメージを受けた。OPYさん一家の生活も一変した。母親は経営していた店を閉めることになり、理事を務めていた化粧品会社の借金が残ったため、単身で日本に働きに行くことになった。OPYさんが高校生の時のことだ。その後、母親は、韓国での経験を生かしてエステ関係の会社を起業し、今も東京を拠点に生活している。

◇ 栄光と挫折 ◇

2004年4月、OYさんは日本語学校に入学するため来日した。来日を勧めたのは、日本で働いていた母親だった。ある日、兵役についていたOYさんの元に母親から一通の手紙が届いた。そこには、「歴史的なわだかまりを脇におくことができれば、韓国人が日本人に学ぶことはたくさんある。だからあなたも機会があれば日本に来て学んだらよい」と書いてあった。

日本語は来日後に「あいうえお」から学んだが、面白いように日本語の力がついた。日本語の先生方にはまだ無理だと言われたが、翌年、ホテルの専門学校に入学し、2年後にはそこそそ有名なホテルに就職した。ホテルの支配人になるという夢に近づけた気がした。ホテルのパンフレットには、「初めての外国人スタッフ」と紹介され写真が載った。OYさんはこの6年間に1度だけ、就職できたことを父に報告するために韓国に帰った。「うちの父はお酒が好きなんで、お酒を飲んだら親戚とか友だちにそのパンフレットを見せながら自慢するわけですよ」。その時の父の満面の笑みが忘れられない。

ところが、OYさんはそのホテルを3カ月ほどで退職してしまう。学校では良くできたはずの日本語なのに、仕事の現場では他のスタッフから渡される走り書きのメモが読めない。最初は丁寧に教えてくれた先輩も、そのうちに「読めないなら勉強しろよ」と厳しくなった。スタッフの中には「韓国人は嫌いだ」という人もいた。初めて味わう挫折感。「もう少し我慢すればよかった」と思うこともある。一緒に入社した友人は、外国人で初めてのインチャージ（一定の時間帯の責任者）になるという話を聞いた。もし自分が粘っていたらその立場にいたかもしれない。「もちろん、友だちにはおめでたいことなんだけど、自分のことを考えるともったいなかったかなあ」と思うこともある。

◇ 起業と挫折、男同士の約束 ◇

ホテルは辞めてしまったが、日本の生活にも慣れたところだったので、韓国には帰りたくなかった。何ができるだろうと考えた末に、2007年秋、茨城で焼肉店を起業した。開店資金と当座の運転資金は、母親から借りた。茨城にしたのは資金的に東京での開店は難しかったからだ。最初の3カ月は赤字で、運転資金が減る一方だったので毎日不安だった。年末

になると客足が伸びてきた。韓流スターが好きな「オバサン」たちが手伝ってくれたり、毎日食べに来てくれたり、車で1時間ほどのところにある韓国人クラブで働く女性たちにもひいきにしてもらった。ところが、ようやく店が軌道に乗り始めた2008年9月、リーマン・ショックの煽りを受けて経営が行き詰ってしまった。

「資本金を全部使うつもりでもう少し粘ったら、何とかなったかもしれない」。でも余力を残して閉店することを決断した。そのおかげで他の人に迷惑をかけず、母親に借りたお金も返済することができた。店の常連客にも閉店の挨拶をした。茨城ではいい思い出が多い。人に恵まれた。店を閉めた後、2ヶ月間、身を寄せていたのは常連客のところだった。その人は、奥さんが韓国人ということもあり、一緒に飲んだり、サウナに行ったり、ゴルフに誘ってもらったり、ほんとによくしてもらった。お客様がトウモロコシやジャガイモを玄関先に届けてくれることもあった。OYさんも店で使うために栽培していたエゴマの葉をお客さんに分けてやったりした。

「リーマン・ショックがなかったら、おそらく茨城の店を続けていたと思う。でもそうしたら、女房には出会うことがなかったんだから、1つを失って、1つを得たってことかな」と前向きに考えることにしている。

2008年の年末に新宿に舞い戻った。卒業した日本語学校に挨拶に行き、そこで今働いている会社の社長を紹介された。面接の時に社長から「ここで死ぬ気になって働いてほしい」と言われ、心が動いた。「自分が落ち込んでいた時に手を握ってくれた人なので、社長のために、自分のために、男同士の約束のために頑張ろうと思った」。自分が大変だった時に手を握ってくれた人の恩に報いたい。

◇ 埋まらない溝 ◇

茨城では地域の人たちとの良い関係ができたが、東京ではそういった人間関係を期待することはできない。「正直言って、韓国人を嫌がる日本人って結構いるんですよ。それに今は仕事でいっぱい、いっぱいなので、仕事以外で人と付き合う余裕はない」。自分が今まで住んでいた日本人の中に入り込むんだから、邪魔をしちゃいけないと思っている。だから妻

にも、ゴミを捨てたり、大声を出さないとか、役に立とうというよりも、なるべく「マイナスをしなきゃプラスになる」と言っている。

年配の人たちからは、直接的に差別されるというより、無視されたり、嫌われているんだなあっていう「雰囲気」を感じことがある。酔っ払いのおじいさんには「韓国人のくせに」と言わされたことがある。「韓国だったら殴っちゃうとこだけど、ここは日本だから我慢します」。

他方で、専門学校で親しくなった友人からは、「韓国と日本の歴史的な問題について、自分は日本の代表ってわけじゃないけど申し訳ない」って言わされたことがあり、日本人もいろいろな考え方をする人がいるん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少しホッとした。「やった側はすぐに忘れてしまうけど、やられた側は忘れない」。この溝はなかなか埋まらないと思う。

◇ 将来 ◇

OYさんが、今迷っているのは、子どもの教育のことだ。まだ、子どもはいないが、日本にいると日本の考え方になってしまいそうだ。そうすると自分の子どもでこれまでの家族のつながりがなくなってしまうような気がする。両親には「お互い元気に頑張ればそれでいい」と言われているが、長男としての責任のようなものをどこかで感じている。

子どもができたら韓国へ帰った方がいいのではないかと思うのは、子どもに自分と親との関係を見せたいからだ。祖母もいるので、祖母に対する父の態度も見せたい。そうした関係性の中でしか育てられないものがあると思う。核家族だとどうしても考え方方が自己中心的になると思う。大家族で暮らすと、「勝って勝つじゃなくて、負けてあげて勝つ人間関係」を学ぶことができる。OYさんはそれがとても大事なことだと考えている。「道を選ぶのは子どもだけど、道を作るのは親の責任だ」という父の子育てについての考え方には、今は深く共感することができる。

当面の目標は、「頑張って、正直、上まで行きたい」という。「社内で出世して、母もいるし、女房もいるので、家を買いたい。でも、最後の最後は（韓国に）帰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え」。まだ、将来については方向性が定まっていない。

◇ インタビュー 5 ◇

KJ さん（30代・男性）「一目惚れ」

2010年4月1日、ソウル出身、韓国系企業勤務、日本在住7年

インタビュアー：武田里子

◇ 略歴と家族 ◇

KJさんは1977年生まれの33歳。妹が一人いる。父親は、建築関連の運送業を営んでいる。韓国人男性で、特に長男の場合はみな家のことを大事に思っている。KJさんも将来は、両親のために韓国に帰るつもりだが、まずは日本で頑張って成功したいと考えている。KJさんは、日本留学のときに知り合った日本人女性と2009年3月に結婚したばかりだ。両親には、反対されるだろうと、日本人女性と付き合っていることをなかなか言い出せなかつた。ところが、意外なことに両親から「好きな仕事をして、好きな人と元気で暮らせればそれでいい」という言葉をかけられ、驚かされた。同棲からなかなか結婚に進まない2人に、業を煮やしたのはKJさんの母親だった。占いで結婚式の候補日を2つに絞り、全ての段取りをつけて、「さあ、日にちは自分たちで決めなさい」と背中を押してくれた。3月14日にしたのは、結婚記念日がホワイトデーと一緒になら、忘れないと考えたからだった。

◇ 来日、妻との出会い ◇

「僕の人生って結構気まぐれというか、その都度の偶然が重なっているんです」というKJさん。中学の成績は良かった。高校は、普通の一般学校とどちらかというとエリートが行く外国語高等学校の選択肢があった。外国語高等学校は特別な試験があるが、KJさんはそれに合格した。入学後に専攻する外国語を選ばなくてはならない。KJさんは、第一志望を英語、第二志望を中国語、第三志望を日本語にした。それが「運命」だったのか、第三志望の日本語で受かった。「それまでは、正直、日本に対して何の興味もなかった」ので、「日本語かよ」と思った。大学受験では、外国語高等学校の生徒は、高校で専攻した学科を選ぶと特典がある。浪人はしたくなかったので、大学も日本語学科を選んだ。「僕がこうして

今、日本にいるのは、中学3年のときにさかのぼるんです」。在学中に兵役を済ませて、せっかく日本語を勉強したので、日本に行かないまま卒業するのはもったいないと思い、1年間休学して2002年に来日し、代々木にある日本語学校に通った。

当時、韓国人留学生と日本人学生が、毎週土曜日に大久保で日本語と韓国語を相互に学び合う会を開いていた。夜7時から2時間くらい会話練習をした後は、近くの居酒屋で懇親会、というのがいつものパターンだった。KJさんも最初の2カ月ほどその会に通ったが、アルバイトを始めたりするうちに足が遠のいた。その年の暮に友人から電話をもらい、久しぶりに参加した会で偶然出会った女性に一目惚れした。「とにかく可愛かったです。可愛くて仲良くなりたいな」って。何とか携帯電話の番号を聞き出し、翌日から猛アタックを開始するものの、最初のデートにこぎつけるのに1カ月もかかった。「後で聞いたら僕の第一印象はあまり良くなかったみたいです。ひげを生やして茶髪で、あんまりしゃべらないし、無口で酒ばかり飲んでたので。」さらに1カ月位かけてようやく手を握れるところまで来たが、KJさんの留学期間はまもなく終わろうとしていた。4年生に復学して、とにかく卒業しなければならない。

2月にKJさんが帰国すると、彼女が3月の連休に会いにきてくれた。5月の連休にも会いにきてくれた。夏休みに入った7月にはKJさんが日本に来た。会えない間はインターネットのチャットや国際電話で連絡を取り合った。当時、KJさんは学生だったので、デートの費用はほとんど彼女が払ってくれた。卒業したら、なんとか日本に行ける仕事を探さなければならぬ。彼女のこともあったが、日本語を活かせる仕事がしたかった。韓国に住みながら日本に出張で行ったり来たりする形じゃなくて、韓国企業で日本に常駐できる仕事を探した。しかし、見つからなかつた。「いい会社は英語も必要だったので僕のスキルでは足りなくて、途中でこのままでは駄目だな」と思い、それじゃあ韓国語を外国人に教える資格を取ろうと、4カ月コースの講習も受けた。しかし、この作戦も上手くいかなかつた。韓国語講師の仕事も見つからず、時間の無駄だったかもしれない、途方に暮れていたところに舞い込んできたのが、韓国政府が募集して海外の企業に人材を派遣するプログラム情報だった。それに応募して採用され、派遣されたのが今の会社である。再来日した

のは、2004年11月。6ヶ月の研修後は、韓国に戻ることも、正社員として採用される可能性もある。幸い、KJさんは採用された。これで彼女との遠距離恋愛に終止符を打つことができた。それが一番嬉しかった。「親も大感激で、日本で働く、良かったね」と喜んでくれた。

◇ 親族で初めての国際結婚 ◇

日本人女性との結婚については、自分の両親の説得はほとんど必要がなかった。むしろ父親は、日本の女性に対して献身的というイメージをもっていたので喜んでくれた。でも親戚の間ではKJさんが初めての国際結婚だったので、「うちの家族にもこんなことが起きるんだ」と驚いた人の方が多かった。

問題は彼女の両親の説得だった。地方の出身だったせいか、「韓国人と結婚したら韓国に帰らないといけない、お前が苦労する」となかなか了解が得られなかった。最後は、説得は無理だとあきらめて、押し切ったと言うか、半分無視して同棲の既成事実を作り、「結婚式をこの日に決めたので参加して下さい」と通知を送った。結婚式は韓国であげた。彼女の父親は体調が悪くて参加できなかったが、母親は出席してくれて、「娘をよろしくお願ひします」と言ってくれた。「今もまだ、腹を割って話せる関係ではないのですが、嫌な顔はしませんね。たまに遊びに行くとすごいご馳走を作ってくれます」。

◇ 子育て ◇

KJさんは、国籍は韓国のままにするつもりだ。子どもは子どもの自由に任せたい。妻との会話は100%日本語。妻は簡単な韓国語の単語は分かるが文章にはならない。だから両親との会話は、もっぱらKJさんが同時通訳のように橋渡し役になることになる。KJさんは韓国語を教える資格もあるわけだから、本当は、韓国語を教えた方がいいと思う。でも、「家に帰ってくると二人とも疲れていて、勉強するエネルギーは残っていない」。それどころか、団地内の付き合いもままならない。「休日は出かける元気もなくて、グターッとしていることが多い。地域活動って暇人じゃないとでき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のが正直な思いだ。

日本と韓国では、性別役割規範に共通性がある。しかし、KJさんは、

「世界の半分は女性で半分は男性なんだから、協力し合うのは当たり前だ」という考えだ。女性も「女だから」という考え方をする人や、女性であることに甘えている感じの人は好きではない。両親には、「早く孫の顔が見たい」と言われているが、妻が子育てと仕事を両立できるかどうか不安がある。生活費が高い日本で暮らすには、自分の稼ぎだけでは生活は難しい。子どもが即使ても共働きを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だから、子どもを保育所に上手く入れられるかどうか、今から心配だ。

子どもは日本語が主体になると思うが、韓国語も幼いころから「注入したい」。日本語と韓国語が両方喋れたらすごく得だと思うし、それに英語もできたらすごく可能性が広がる。子どもは頭が悪くてもいいから健康であればいい。今の韓国の受験戦争は行き過ぎだと思っているので、子どもはのびのび育てたい。

◇ 将来 ◇

KJさんは、将来的には、自分の店をやるか、事業を起こしたいと考えている。そして、今より、頻繁に韓国と日本を往来できるようになりたい。まだ、漠然としているが、起業するとなれば飲食店、会社を作るなら貿易関係になるだろう。独立したいと思うのは、縛られたくないからだ。縛られないためには独立するしかない。

両親は、結婚には賛成してくれたが、さびしい気持ちもあると思う。
20 何年も一緒に暮らしてきた息子がいきなり突然姿を消したようなものだから。でも、例えば、日本でも東京に両親がいて、大阪とかで仕事をしている人は、なかなか頻繁に東京に来られない。それがたまたま韓国だったと考えればいいんじゃないだろうか。日本と韓国は飛行機で2時間ほどの距離なので、少し遠い所で仕事をしている感覚でとらえればいいのだ。ただ、今は、時間とお金の問題で、度々帰国すると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起業したいというのは、時間的にも金銭的にも余裕があれば、韓国との往来もしやすくなると思うからだ。

<『記録集 1』の感想 1>

「韓国は近くてとても遠い国」

武田香織

(30代、女性、パート勤務)

韓国は近くてとても遠い国。これはインタビュー集を読む前の、私の韓国に対するイメージ。理由は、私の生活環境の中には韓国人の知り合いは一人もいないし、韓国に旅行した経験もなかったからだ。韓流ブームとも縁が無かった。だからほとんど真っ白な状態でインタビュー集を読んだ。

最初に驚いたのは、語られる内容にあまり違和感がなかったこと。それでも驚かされたことがある。例えば、韓国の幼児教育のことだ。驚き以上に日本の教育に危機感を感じた。私が住んでいるところは田舎で、子どもたちは伸び伸びと育っている。勉強より遊ぶ時間が長く、塾に通っている子どもたちはあまり多くない。聞いたところによると「中学に上がるまでに九九は覚えさせてくださいね」と学校から注意があるとか。夜中の2時まで塾で勉強するという韓国とは対照的だ。

私も3人の子どもを持つ母親だが、韓国の幼児教育にかける親御さんのような情熱を子どもの教育に注ぐことができるかと言われると、難しい。学力低下が話題となる日本に比べ、韓国には見習うことがたくさんありそうだ。今後も注目していきたいと思う。

もうひとつ、生活習慣の違いもインタビュー集を読んで知ることができた。1人で外食をしない、女性は人前でタバコを吸わないこと、などなど。他にも私の知らないことが、まだたくさんあるに違いない、もっともっと新しい発見がありそうな気がする。第2集が届くのが今から待ち遠しい。

<インタビュー 6>

Mさん（30代・男性）

「どの国でもいいところ・悪いところはある」

2010年4月1日、京畿道出身、博士後期課程4年生、日本歴6年半
　　インタビューア：若園雄志郎

◇ 日本に来てみて ◇

韓国の大学を卒業して6ヶ月程語学学校に通ってから日本に来た。現在は大学院教育学系研究科の博士後期課程に在籍している。なぜ博士課程に進学したのかについては、「特に理由はない」ようである。生計は基本的に韓国語を教えるなどのアルバイトで立てているが、殆ど家賃と食費で消えてしまうので生活は苦しいという。

◇ 現在について ◇

だいたい3年前、修士の頃は時間的に余裕があったためにいろいろな人と会うことができたが、現在はアルバイトに時間を割かねばならず、なかなか機会が無いようである。そのため留学生センターなどに情報と人を求めて行くことも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った。

◇ 日本について ◇

韓国の大学・大学院と日本との差はどこにあるのか、という問い合わせてはしばらく考えた上で「言葉の使い方や自分の振る舞い」と答えた。ただしこれは韓国の友人であっても変わ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ので、文化の違いというよりは通常の人間関係として考えていいだろう。

日本に対するイメージは特がないが、強いて挙げれば韓国にいたときに親切してくれたのが日本人だったということがあった。留学先に日本を選んだのは「自分でもわからない」という。むしろどの国でもいいところ・悪いところはあるのだから、先入観を持って日本に来たということではないらしい。もちろんこれは人に対しても同様であり、いい人もいれば悪い人もいる、というようにある種達観した部分があるようを感じられた。

新宿について、大久保周辺はあまり行かない。Mさんとしては身近に

思えないようである。歌舞伎町についてはアルバイトをしていた経験から細かい地理まで知っているというが、愛着があるということではなさそうである。

日本の良くない点について重ねて尋ねてみたところ、行政の手続きの煩雑さを挙げていた。これは引っ越しをよくやると話していたため、その保証人などの手続きが煩わしいことがよくあるのであろう。しかし物価については日本の方が比較的安いように思われること、そしてなんとか経済的に自立していることから住みやすいところだとは感じているようである。

◊ 将来について ◊

「正直、将来のことは一切考えてない」と話していた。語学でも現在の専門でも講師になればなってもいいらしいが、採用されるかどうか不安だという。ただし講師という将来を目標としているわけではなく、語学学校でも大学でも自分に合ったものがあれば問わ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Mさんにはまだ具体的な将来像を持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ことが全体を通じて感じられたことである。わざわざ日本に留学している以上、インタビュアーの中ではMさんに何らかの具体的な将来像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期待していた部分があっ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しかし、Mさんのようにまだはつきりとはわからないと考えている場合もあるということがわかったことは発見であった。

◇ インタビュー 7 ◇

PY さん（30代・女性）「チャンスの女神の前髪」

2010年4月5日、ソウル出身、韓国系企業勤務、日本在住7年

インタビュアー：武田里子

◇ 略歴と家族 ◇

PYさんは1978年、2人姉妹の長女として生まれた。PYさんが最初に来日したのは、日本に留学していた母親の元を訪ねた小学3年生の頃にさかのぼる。また、曾祖父は日本生まれという家庭環境で育ったためか、日本には外国というイメージがない。東京はソウルとそれほど違わないので、親戚の家がある「まち」みたいな感覚だという。

大学では幼児教育を専攻した。その後、1998年に国費留学生として来日した時には、もともと興味があった子ども服の研究をするため、都内の大学で服装造形を学ぶことにした。当初は大学院に進むつもりだったが、卒業制作のファッションショーで担当した演出の面白さにはまってしまう。このPYさんの進路変更は先生方を慌てさせ、大学院でPYさんを指導する予定だった先生には怒られた。芸能関係の仕事は一見華やかだが、苦労することは分かっていた。でも、若い時でなければできない。ソウルコレクションを担当する韓国の会社から内定をもらったのは、卒業の1週間前だった。「今、来なければ次の人にはポジションを回す」と言われ、考える余裕などなかった。

「チャンスの女神の前髪」を掴まなければ後で後悔する。帰国したのは2003年。そこで3年ほど働いて、2006年に再来日した。韓国の芸能関係にネットワークがあることをかわれて、今勤めている会社の社長に日本で働くかないと誘われたのだ。

PYさんの妹も大学2年の時に日本に短期留学したことがあり、現在は日本の大手銀行で働いている。近く、海外に赴任する。娘二人は日本で働き、母も仕事の関係で東京とソウルを行き来している。家族の中では父だけがソウルを拠点に暮らしている。

◇ ソウルと東京 ◇

新宿や大久保は看板や標識にハングルがあり、逆にソウルの明洞に行くと

日本語ばかり聞こえてくるので、「ここは何処かしら」と思うことがある。勤務先の会社には韓国人が多く、打合せも韓国語ですることがある。言葉や生活、文化面でのストレスがないためか、ホームシックの経験はない。それどころか、20代の前半を日本で過ごし、社会経験が日本で始まったせいか、自分が日本人化していると感じことがある。例えば、最近は、韓国もマナーが良くなつたが、乗客は並ばないでバスが来ると一斉に乗りこもうとする。ソウルに帰った時に、友だちに「どうして並ばないの」と言うと、「日本人みたいなこと言わないでよ」と笑われてしまった。

東京は女性にとって住みやすい。一人の時間を持てるのがいい。韓国でランチタイムを一人で過ごしていると、友だちがいないのかとか、いじめられているのかとか、いろいろ詮索される。また、ランチの時はいつも先輩がおごってくれる。日本では割り勘。PYさんにもソウルで3年働いているうちに後輩ができた。「ランチに行こう」と後輩に声をかけると、財布を持たずにはいと立ち上がる。「なんで?」って思う。しばらくして、PYさんは「割り勘文化」を会社に持ち込んだ。上司が女性だったせいか、意外にすんなりと受け入れられた。

日本の良い点は、女性向けの商品がとても充実していることだ。ヘアースプレー やマスクカラなどの種類がとても多い。人気のあるお土産は「さらさらシート」だ。韓国は湿度があまり高くなつたためか「さらさらシート」を売つていなかつたので喜ばれた。FIFAワールドカップ以降、日本のいろいろな商品が韓国に入って来るようになった。例えば、制汗スプレーも以前はニベアのものしかなかつたが、最近はとても種類が豊富になった。

日本の生活にはほとんどストレスを感じないというPYさんだが、未だに違和感を覚えるのが友人との付き合い方だ。韓国では友だちとの約束は気軽に、「今日は天気がいいから一杯飲まない?」と思いついたら電話をするだけでいい。ところが日本では、大学の同級生で集まるといつても、1か月位前からメールで待ち合わせ時間を決めて予約をし、誰誰が来れないとか来るとか、予算はいくらとか、細かいことまで事前に決めないといけない。「もっと、気軽に声をかけて、都合が悪ければまた次に」という感じでいいのと思う。この面倒臭さには、未だになじめない。

◇ 韓国のイメージアップ ◇

今の会社に誘われた時、「迷いがなかった」といったら嘘になる。ソウルの仕事にも未練があつたし、実はアイドルにはあまり興味がなかった。それでも、この誘いを受けることにしたのには、いくつか理由がある。一つには、日本で韓国人のイメージがあまり良くないことが気になっていたからだ。仕事で日本に韓国文化の紹介ができる。そして、韓国をアピールしながら、自分が頑張っている姿を日本の人々に見せることで少しは韓国のイメージアップに役立つかもしれない。それに、この仕事も年をとつたらできない。「チャンスの女神の前髪」を掴まなければ、後で後悔する。もし、これがアメリカやイギリスで働くかないかという誘いだったら断っていただろう。東京はPYさんにとっては知り合いのいない釜山よりも身近な場所で、友だちもいて、妹もいて、母もよっつちゅう来るところだ。心理的な壁は低い。

最初に担当した仕事は、韓国スターのグッズやCDの輸入だった。ファッションショーの仕事などを通じて広げた芸能関係のつながりを活用している。仕事で一番必要なことは、韓国の芸能情報をいち早く入手すること。特にCDは、レコーディングの段階で押さえないと、製造枚数が限られているため必要な枚数を確保できない。雑誌も、例えば、表紙が「ヨンさま」だったら、出版前に何百冊、何千冊とおさえないと手に入らない。そこがPYさんの腕のみせどころになる。情報とネットワークが勝負だ。この仕事をすることになるなら、韓国にいる間にもっと幅広く知り合いを作つておけば良かったと思う。「好き嫌いがはつきりしているので、性格が悪そうな人とはあまり親しくしないとか、選別して付き合っていた」ことを、少し悔やんでいる。

◇ 将来 ◇

最初は5年位働いたら韓国へ帰り、結婚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思っていた。それが今は、日本に居るなら35年ローンでマンションを買おうと思っている。これは全く想像していなかった展開で、自分でも驚いている。生活の拠点はこれからも日本になるだろう。

将来構想を変えることになった理由を考えると、2つくらいあるよう思う。一つは、今の仕事が面白くて充実感があるからだ。もし、朝9時に出勤して夕方帰るという単調な仕事だったら、韓国に帰つていただろう。新人歌

手は次々にデビューするし、新しい音楽も次々にリリースされる。面白い芸能関係のニュースには事欠かない。そうした情報をいち早くキャッチして、誰にも注目されていない商品を仕入れて、それが売れたときには仕事の手ごたえを感じる。

もう一つは、職場環境が大きいと思う。勤務先の社長が女性を活用する明確な方針を打ち出しているからだ。特に、文化分野は男性より女性の方が適していると、全ての部門の責任者に女性を起用している。PYさんの世代が主力だが、最近、そのうちの一人が出産した。すると、これから次々に産休に入るだろうからと、子育てと仕事が両立できるように保育施設の検討も始めた。

ただ、マンションを買う話は父親がさびしい思いをするような気がして、まだ言い出せずにいる。妹も日本で暮らすことになるだろう。父親からは、「女性でも何でもできなきゃダメだし、もし旦那がフリーターだったらしつかり働かなければダメだ」と言われてきた。「パパは老人ホームに入るから、早く嫁に行け」と言うが、本心は一緒に住みたいと思っているに違いない。20代前半の頃は、「30歳までに絶対結婚する」と思っていたが、仕事が面白くなったら結婚願望が小さくなった。でも、来年には結婚したいと思う。子どものことを考えると、小学校の入学式で母親が40歳過ぎていたらかわいそうだと思うからだ。付き合っている韓国人の彼とは、マンションを買うかどうかについて、まだ、意見がまとまっていない。

＜インタビュー 8＞

ヨンさん（40代・男性）

「世界と日本のゲートウェイを作る」

2010年4月13日、ソウル出身、自営業、日本歴通算12年目

インタビュアー：渡辺幸倫

来日以来11年勤めた会社を辞め1年ほど前に独立したヨンさん。現在は自分が「本当にやりたい、小さいけどもやりたいことを」との思いから日本と世界をつなぐ情報ゲートウェイサイトの開発をしている。一時間半をこえる長目のインタビューだったが、これまでの人生で影響を受けたことややり遂げてきたことなどについて、いろいろと語ってくれた。

◇ 大学時代の話 ◇

弟が一人の2人兄弟。子どもの頃は「もう皆同じで、全部貧乏だったんですね、大体」と振り返る。大人からは特別な資源のない国だから豊かになるためには頭しかないと教えられ、「勉強、勉強、勉強だけだったんです。国全体が」と感じていた。

しかし、1980年はじめ頃に「大学はいると、今まで経験してなった文化とともに、見えたんですね」という。具体的には「1980年代には、韓国が凄く問題があったんです」「光州の事件もあったし。それがちょっと隠蔽ですか？なんとかマスコミ？とか全部報道とかもができなかつた」ことが見えてきた。「私が高校生の時には全然知らなかつたものが、壁とかに書いてあるんですよ。何々がありました、何人何人が死亡しましたとかって。で、この後ろには米軍があって、全部指示通りに今の政府がやりました」などとあったそうだ。知ったからには、「政府にちょっと反対するしかない」となるのが当時の大学生であった。当然のように「デモとかも凄かったですよ」と言う。

民主化運動の時代であった80年代に大学生活を過ごしたこの世代は後に386世代と呼ばれるようになる。激動の80年代に大学生活を過ごした60年代生まれの世代で、現在も韓国社会で独特の存在感を持っている。

ヨンさんは大学生の時に初めて来日する。日本に留学していた友達を

訪ねて一週間ほど旅行にきた。今からほぼ 25 年前のことだが、印象に残っているのはテレビ。「すごいなーと。深夜のテレビ番組見て」「友達と、集まって、お酒のみながら、本当にこれ放送しても大丈夫なのかなって思ったんですよ」と言う。韓国での生活との大きな違いを感じた瞬間だったことだろう。

◇ 韓国での会社員時代 ◇

激動の大学時代を終え、90 年代の初頭に IT 関係の企業に就職する。建設プロジェクトの情報管理を多く扱った。そこで働いた 7 年間は、インターネットによる急速な社会変化が起り、競争も日々激しくなる一方だった。そんな時にいわゆる IMF 通貨金融危機が起り、国外に活躍の場を求めようすることになる。「この時代の日本は、韓国より何年くらいかちょっと遅かったんですよ。インターネットのホームページとかまだ作ってない状態なんで。こっちで競争して難しいよりも、まだ何もないところでやればいいと思って」。韓国との IT 格差は IMF 危機後に韓国政府が行った積極的な IT 化推進政策によって広がったとされるが、ヨンさんによれば、実際には IMF 危機頃には既に差が広がりつつあったそうである。

しかし渡航先として日本に対して特別な思いがあったわけではない。ただ、今思えば、大学時代に日本語を「アイウエオくらいだったんですけども勉強」した時に思ったことは関係していたかもという。その頃ことだが、「サッカーの日韓戦の試合をあるときに見たんですよ。この試合で、日本のアナウンサーとか、解説する人が、逆に、どのように日韓戦について話してのかちょっと聞きたい気持ちは少しあったんですよ」。大学時代に影響を受けた報道されていることが全てではないという考えがこの好奇心に繋がったのだろう。

◇ 日本に来てから ◇

90 年代末頃に、奥さんと生後間もない娘さんを残して来日。IT 技術者として文京区に住みながら港区の会社に通った。ほどなく二人を呼び寄せ、その後、蕨市や国分寺市などを経て新宿区に移り住んだ。

最後の引っ越しは娘さんの教育のため。新宿区内の韓国学校のすぐ近

くに移った。「韓国ではちょっと両親とかはもう全力じゃないですか。子供の教育に。子供のために引っ越したり。今も私たちも同じなんですね」と言う。日本での韓国学校の他にも、学習塾に通わせたり、長期休暇中に韓国の実家に戻った際に地元の学校に通わせたりと教育には余念がない。日本に住む韓国人として、「日本の方くらいの日本語はできないし、韓国の人のような韓国語はできないですよ」と悩みを隠さないが、今後の教育については、「大学を何処でいくか。日本で行くか、アメリカで行くか、韓国で行くかによっては、中学生からなんか準備しないと」と幅広い視野から可能性を考えている。

◊ 本当にやりたいことを求めての独立 －3つのゲートウェイ－ ◊

11年働いた会社では鉄道会社の料金徴収システムや、工場の生産管理などのプロジェクトに取り組んだ。いろいろな経験を積むことができたが、会社のためでなく自分のために仕事をしたいという思いが強くなり、一年ほど前に独立した。

今は、日本と世界をつなげるゲートウェイとなるサイトを作っている。「ゲートウェイ・トゥ・ジャパンと名刺にも書いています。ヨンさんのサイトは大きく三つに別れる。

まずは、12年になる日本での生活で知った情報を日本以外の国につたえるサイトだ。「今普通にインターネットに載っているものじゃなくて」、新しい見せ方を模索している。ヨンさんは例を挙げてくれた。「例えば今、普通に日本とインターネットで検索すると、色んな情報が出るんですよ。これが今現在までの『情報』です」話にも力が入る。これを印刷したり紹介されている本を購入したりするのがこれまでの形だった。「それを今後は一つにしてスマートフォンが、一つだけあれば世界何処でも行ける。情報をこれで全部もらえるから。それで今、スマートフォン用のアイテムをちょっと作ってるんですよ」。

二つ目は新大久保に注目したものだ。「日本の方はこの新大久保のことをコリアンタウンとか言うじゃないですか」。ただ、「普通、美味しいお店の紹介があって、三段バラ（豚肉の焼き肉：インタビュアー注）とか具体的に食べたいものの紹介がある。これをちょっと選択して逆に見せよう。この逆のシステムを作れば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店を

起点にした街の紹介ではなく、食べたい料理やほしいサービスを起点にした街の紹介。発想の転換だ。世界と日本といった単純ではない、複雑な経路のゲートウェイが見える。

三つ目は、「今こっちに住んでる韓国の人たちのコミュニティの場所」。日本に住んでいる韓国人が自由に情報交換ができる場所が少なすぎると感じている。つまり、韓国からの日本へのゲートウェイだ。もちろん一般生活上のことも視野にあるが、そこには仕事上の問題を解決したいという思いもある。

韓国からのIT技術者は派遣会社を通して働いている人が多い。ヨンさんが来日した頃には、学歴や就業経験などの条件が現在よりもかなり厳しかったのだが、この10年で随分と緩和された。その結果、残念ながら必ずしもレベルの高い技術者ばかりとはいえなくなってしまった。しばらくはそれでも技術者が必要という時期が続いたが、やはり昨今の不況の影響か、技術者のレベルを問題にしたトラブルが起こり、契約が更新されないことが起こり始めているという。

会社側にたとえ正当な理由があったとしても「クビになったりすると、韓国はインターネットの文化だから、そのクビになる人が理由は、理由は書かなくて結果だけ書く」と問題を指摘する。契約が打ち切りになつて悔しい気持ちも分かるが、ヨンさんは状況を厳しく分析する。「理由はあるんですよ」。「ほんとに経験のない人派遣する会社も問題だし、それに『行きなさい』と言われたら行って自分が経験があるよう頑張るのもおかしいし。インチキみたいものになっていっ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のだ。いずれにしても、「結果だけを話すとこのよう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クビだけいうと。悪い会社ですよと。理由があるんですけど」。しかも、それを根拠に技術者達のコミュニティではブラックリスト、「この会社は行っちゃダメって言うリスト」まで作成されてしまうというである。

このような状況を憂いながらも、一方では、IT技術者の排出国としての中国、ベトナムなどの台頭に危機感を募らせている。韓国人技術者が現場から離れてしまっている間に、「他の国の人人が全部スペースを埋めるから、行く場所がなくなってくる...」という状況の変化があり、「韓国のかっちで働いていたIT関係の人たちはどうすればいいか...」と戸惑

ってしまう。

だからこそ、技術者の技能や経験を管理し、問題が起きたときに責任をとる団体が必要だと考えている。ヨンさんのサイトのコミュニティがそのきっかけになればと願っている。「できれば架け橋っていうほどの大きな話じゃないんですけど、本当に道を作りたいです。ゲートのように。そこで、良いもの悪いものがあっても、そこで話せれば、誰かが助けたりとか、そこで協力したりとかできる。そういうゲートを作りたい」。その先にはIT技術者だけではなく、日本の中小企業を世界に紹介するというゲートウェイも視野にある。「韓国に日本の小さい企業を紹介しても、まだ道とか場所とか分からぬじやないですか。こういうのをちょっと何とか一つに集めて、興味のある人に来てもらって、『これ中小企業の良い製品だ』とか、わかるような場所とかあるといいじやないですか。誰もやらないから私がやりたい」。大企業にはルートがあるだろうが、中小企業では必ずしも同じことができない。そんな会社と世界をつなげたいというのである。

独立してからの会社は数人の友人が手伝ってくれている。その友達と一緒にゆっくりと、しかし、しっかりとこのコミュニティを育てていきたい。

「一生懸命やれば自分が期待してなったものまでも、できるんじやじやないか。それが希望です。まあ一緒にやってる人たちの希望も一緒です。本当にお金儲けなくても、誰かがこれをやらないと。必ず必要なものだったんですけど、誰もやらないから私たちがやりましょうと」。

世界と日本のゲートウェイ。誰もやらないから自分がやる。

実に頼もしい限りだ。

◇ インタビュー 9 ◇

Nさん（30代・女性）

「留学、結婚を経て、日本に暮らす」

2010年4月16日、テグ出身、パート勤務、日本在住10年目

インタビュアー：藤田ラウンド幸世

◇ 略歴と家族 ◇

Nさんは1972年生まれで、4人きょうだいの3番目に育った。小学校のときに中南部の都市に移り、小学校から高等教育、そして就職までそこで過ごす。上二人のきょうだいは大学に進学したが、Nさんは大学ではなく、専門学校の司書コースで勉強をする。卒業後、アルバイトをしたりましたが、その後、異なる分野の仕事を紹介され、その仕事に必要な専門知識の勉強をし、一ヶ月後に合格をして、採用される。

日本には、二度留学経験がある。一度目は、会社を休職して1ヶ月半の短期留学を経験。二度目は、28歳のときで、日本語学校に入学。アルバイトをしながら、2年間日本語の勉強をする。日本の大学に入って勉強をしたいという気持ちがあったが、経済的な理由から、2年間ずっと迷い、結局、進学はしなかった。アルバイト先で一緒に働いていた男性と交際し、結婚をする。現在は、日本人の夫と子どもと新宿区に暮らす。

◇ 高校時代に出会った日本のサブカルチャー ◇

60年代後半から70年代に生れた「ベビーブーム世代」の人たちは、当時、すでに大学進学熱のため、猛勉強をして大学入学を果たすことが普通になっていた。お弁当を二つ持つて学校に通う毎日だった。

「朝7時に出たら、50分バス乗つて行って、そこから勉強が始まって、夜10時まで勉強するんですよ、それ、自由学習って言うんですけど、自由学習じゃないんですよ・・・強制的にさせられて。6時くらいに授業が終わって、それからご飯を食べて、6時半ごろから、自分で学習を始めるんですけど、私は勉強ではなくて本を読んでいたんですよ。」

Nさんは哲学に興味をもっていた。高校に入ってから、毎月、お小遣いをもらうと、本屋に行き、本を一冊買うことが楽しみだった。本屋に行き、新しい本と出会うことが幸せだった。女性として、「インテリで、

知的で、ちょっと違う生き方をしている」人にあこがれた。『星の王子様』も愛読していた。今、振り返ると、真面目に勉強をする時期にしていたことを後悔することもあるが、この時期の「本」への憧れは現在の自分の仕事にも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

日本の音楽や小説、漫画も好きだったので日本には興味を持っていた。1991年のある日、いつものように本を買いにいったとき、偶然見つけ、手にとったのが村上春樹だった。手にとって読んでみたら新しい内容だったので即座に買った。家に帰って読み始め、そのまま一気に朝まで読み続けた。それから『ノルウェイの森』も読み、衝撃を受けたことを覚えている。

音楽はそのときはミスター・チルドレンが好きだった。住んでいた街には、日本の音楽を流すカフェがあり、そこで日本の本やCDを貸してくれることもあった。そのころは、日本語は全くわからなかつたが、いつか日本に行ってみたいと強く思った。

◊ 日本への留学と結婚 ◊

初来日は、会社で働いていたころに友達に誘われて、休職をして、1ヵ月半の短期留学を体験する。今から考えると日本語もわからないのに勇気があったと振り返る。日本語は読めないので村上春樹の本は読めなかつたが、ミスチルや松任谷由美のCDを買ったりして、楽しかつた。

帰国後、「村上春樹が日本語で読めたらいいな、ミスチルの歌を日本語で歌えたらいいなと思って、勉強を続けようと思つたりしたんですが、韓国で23歳くらいだと親がちょっと、お母さんが心配してもう結婚すればみたいにい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以後、日本語は自分で勉強し、いつか日本で勉強をしたいとその機会を窺う。

28歳のときに再来日、日本語学校に入学。アルバイトをしながら、日本語の勉強をする。日本語学校の同期の学生たちは中国人が多く、懸命に勉強をして大学受験を目指していた。こうした人たちが次々に早稲田や慶應などに受かるのを見て、自分も日本の大学で勉強したいという気持ちを捨てがたかった。しかし、経済的なことを考えると、年齢的に親に頼ることもできず、最後まで迷う。

二度目の留学では、まだ日本語が上手ではないころから、アルバイト

の店員として雇ってくれた職場があった。初めの募集では土日という条件だったのが、自分が一生懸命働いたのを認めてくれて、一ヵ月後には仕事を増やしてくれた。2年後、留学期間の終わるころに職場の男性と付き合い始め、プロポーズを受ける。夫は両親に挨拶に来てくれた。

結婚後、夫の職場の近くに初めは住んだが、その後、夫の故郷に家族で戻ることになる。夫の故郷は田舎で、そこでは家賃が3LDKで1万5千円だった。同じ韓国出身のお嫁さんの立場の人が同じ地域に二人いたものの、車で1、2時間のところに住んでいたので頻繁には会えなかった。仕事がなかったので、働けなかった。その代わり、当時、韓流ブームだったので、公民館で韓国語を教えたり、キムチを作つて近所の人あげたりして喜ばれていた。その後、夫と相談をして東京に戻ることを決心した。

◇ 新宿区で子育てをしながら、働く ◇

東京では生活費が高いことを覚悟し、初めから共働きを考えていた。住居は、以前通っていた新宿区にあるキリスト教会の友達に家探しを頼み、教会に通える距離にある場所を見つけてもらい、2006年に東京に戻った。

新宿区を選んだ理由は、以前からの教会を通じた韓国人の知り合いが多く、情報も簡単に手に入ることだが、一方で友達は韓国人が多いので日本人とあまり付き合うことがないことも自覚している。田舎から東京に戻ってきたときのカルチャーショックをはっきりと覚えている。夫の故郷では、夫の家族の地元だったのでみな、自分に挨拶をしてくれて、子どもの学校にいったときも親切にしてくれたが、新宿に引っ越してきてから子どもの学校行事に参加したときに、お母さんたちは全然話かけてくれず、グループができている感じで入り込みづらかった。「集まって、話はしてるんだけど、なんかこう私を見ても話しかけない・・・、なんか、一言くらいは話かけるんですけど、そんなにペラペラしゃべれないし、なんか、こう、関係が親しくならない。」

また、子どもの付き合いを通して自分たちの家族と友達の家族の違いを感じることが多い。子どもが友だちの家に遊びにいくと、「お母さんうちが一番貧乏だよ」と帰ってきてから言つたり、「社長さん」で、「一戸

建て」で、ある友達の家に行ったら「お母さんエレベーターがあったよ」と聞いたり、「その反面、他の友達の家に行ったら、うちより狭かったよとか」、子どもの体験を通して、新宿区の貧富の格差を感じることもある。

韓国人との付き合いの方が気楽だということもあり、日本人のお母さんたちとの付き合いに積極的になれないという心理もある。「日本人のお母さんだったら気遣わなければならないし」「保育園とかに行って話しているときは、なんかすごく笑いながら親しく話をするんですけど、うちに遊びに来てくださいとか言われたこともないし、みんな保育園のお母さんたちは仕事をしていて忙しいから」と距離感をうまくつかめない。

自分も東京に来てからは、主婦だけではなく、本屋でパート勤務を始め、週に4日忙しく働いているので充実している。高校時代からの本と音楽が好きだったことが今の仕事につながっていて、自分がしてみたかった仕事だったので、大変なこともあるが、やめられない。

◊ 子どもの韓国語 ◇

夫が日本人なので特別に韓国語を習わせたいとか、そういうこだわりは特にない。新宿区内に韓国学校はあるのは聞いたことはあるが、学費が高く、通うのも大変。家で自分から子どもに韓国語で話しかけることはあるが、全体的に日本語の方が多い。子どもは、韓国語は聞いてわかるものの、答えるときは日本語で返す。去年、韓国に子どもを連れて帰ったら、思ったよりできなかつたのはショックだった。自分は加減をしてゆっくり話しているが、現地にいったらそうはいかないので、うまく聞き取れなかつた様子。周りの韓国人のお母さんからは、「あなたは韓国人なんだからもうちょっと韓国語教えなさい、両方できるチャンスなのになんで逃がしてるの、韓国語を教えないだめだよみたいなことを言われ」、「自分でも意識して韓国語でしゃべろうとしているんですけど、分からないとやっぱり日本語で言っちゃう」。それでも、通っている教会の、土曜日に子どもに韓国語を教えてくれるクラスに連れて行つている。永住ビザを持っているのでこれからも日本に家族と住むつもりでいる。

＜インタビュー 10＞

Sさん（20代・女性）

「残りの大学生活でやってみたいのは英語の勉強」

2010年7月5日、釜山出身、大学生、日本滞在歴5年目

インタビュー担当：河合優子

◇ 日本に来日するまで ◇

Sさんは韓国で高校を卒業後、2006年春に来日した。韓国では、とくに外国語高校を希望していたわけではなかったが、数学が得意だったので、成績優秀者が集まる外国語高校の入試に合格してしまったという。高校では、英語をメインに勉強しながら、日本語も勉強した。高校では、副専攻として中国語か日本語が選択できたが、中学時代にクラスの友だちに見せてもらった、日本のドラマ『ごくせん』を見たことがきっかけで、日本語を選択した。日本に留学を決めた理由の一つに、英語があまり好きではなかったことがあるという。

◇ 日本語学校時代 ◇

来日して最初に住んだのは高田馬場。ここで日本語学校に通うことになったのは、韓国人学生が約2割と少なめであったことが理由だった。高田馬場での生活については、「ひとり暮らしがすごく楽しかったし、あと、高田馬場って少し歩いたら新大久保で、新宿もあって、あと、早稲田大学も近くで、どこでも行けるし、楽しかった」。日本語学校で学ぶなかで、友人間で使うような日本語ではなく、敬語などを含めたきちんとした日本語の話しことばを学ぼうと、居酒屋で働き始める。そこで、店長から、名札の名前を本名にすると、違和感を感じる客がいるかもしれないから、日本名にしてほしいといわれる。本名でなにがいけないのだろうと最初は思ったが、働くのには日本名があったほうが逆に楽だったという。この店には、韓国人の他にも中国人留学生のアルバイトもいたが、みんな週に何度も名札の名前を変えて、「今日は何にしようかな」と楽しんでいた。そのうち、日本人のアルバイトの人たちも、おもしろがって名前を変え始めた。

◇ 大学に入学してから ◇

神奈川県の大学に入学し、メディア関係の勉強をしている。最初はすぐに日本人の友だちができず、大学近くのアパートに住んでいたが、新大久保に週5回通って、韓国人の友だちに会い、授業のない日はそのまま友人の家に泊まっていた。新大久保には複雑な感情がある。「韓国人って、新大久保嫌いなんですよ。でも、行く感じ」という。その理由については、「韓国人ばっかりいるから。私は日本語を勉強しに日本に来たのに、結局、韓国語しかしゃべらないという感じが多かったので」と話す。

同じ大学の日本人大学生については、「みんな恥ずかしがり屋ですよ。メールはちゃんとしてるんですけど、会うとすぐ行っちゃって、挨拶もしないし、それのちょっと繰り返しがあって……」という。しかし、大学2年生のとき、海外での課外授業に参加し、日本人の友だちもできるようになると、新大久保へ行く回数も、週に1回ぐらいに減ったという。

最近、いとこが大学卒業して来日し、新大久保で日本語学校に通っているため、新大久保にはよく出かける。いとこは、日本語が全然話せないため、Sさんが新大久保を勧めたそうだ。

◇ アルバイトなど ◇

新宿でアルバイトを探すのは難しくないが、現在住んでいる外国人人口も少ない関東圏の中都市では、とても大変だ。「電話を30回ぐらいしたんですけど、『じゃ、そしたら面接を、火曜日にしましょう、何時がいいですか？お名前教えてください』と言うので、そのときに名前でばれちゃうじゃないですか、外国人ということ。それで、『私、外国人なんですが、それでも大丈夫ですか？』と聞いたら、『ああ、外国人か、ごめんなさい』とか言うんですよ。」。アルバイト求人を見て、電話をし、アルバイトについていろいろと話をした後、「外国人です」と告げると、相手から「日本語を話せるのか」と聞かれて、今まで日本語で話していたのに、と絶句したことあるという。現在は、「最後の挑戦」と思って電話したレストランに雇ってもらい、アルバイトをしている。

ただし、中都市には新宿にはない良い面もある。「みんな忙しいじゃないですか、新宿の人。だから、『すみません』って言っても、すぐ行っちゃうし」という。今住んでいるところでは、特に中高年の女性がとても

親切だという。バスで「今日は何買い物したの」とか、「私も韓国語勉強しているの」などと話しかけられたりするという。

◇ 日本社会に望むこと ◇

新大久保で、日本人の年配の男性から、「やっぱりおまえは韓国人だろ」と言われ、嫌な思いをしたことが何度かある。「嫌なことを言われても、あんまり日本語を話せないから言えないんです。だから、家に帰って、アニメとかドラマ見て、すごく悪口を覚えて、今度会ったら絶対言ってやろう」と思ったそうだ。

日本人にはもっと普通に接してほしいという。「韓国人だからということにこだわらないでほしいというか。同じ外国人じゃないですか、アメリカ人とかイギリス人とか。韓国人も外国人だし。でも、韓国人に会うと、すぐ歴史の話とか、そういうことを言わないほうが……」。しかし、韓国に関してはもっと知ってほしいという気持ちもある。バイト先では「韓国って中国語話すんだっけ」といわれたり、お客さんにモンゴル人の人がいたときには、バイト先の人から「Sさんは韓国人だから、モンゴル語もできるのかな」と聞かれて驚いたという。

◇ 将来について ◇

卒業後については迷っている。円高であることもあり、日ごろから金銭的に気をつかって生活しているため、「本当は日本にいれたらすごくいいんですけど、ちょっと疲れたので、韓国に帰って1年間ぐらい休みたいんですけど、何もしないで」。ただし、韓国で就職するとなると英語力が問われるため、「本当にTOEIC点数があんまり出ないと就職できないので、そういうことを考えたら、韓国に帰りたくない」のだそうだ。これから、残りの留学生活でやってみたいことは、英語の勉強だ。

将来は、バラエティ一番組のプロデューサーになりたいという。そして、単におもしろい番組をつくるというだけでなく、社会貢献につながるような番組をつくりたい。例えば、韓国の『無限挑戦』というバラエティ一番組では、番組のカレンダーを限定販売し、その収益金を寄付しているが、このように単に娯楽だけのものではなく、社会に何らかの形で還元できるような番組をつくってみたいそうだ。

<『記録集 1』の感想 2>

「ナラティブへのギャップと感想」

中島広美
(40代、女性、主婦)

最初、このインタビュー集を読むのに違和感のような、うまく言葉で表せない、心の底にざわめくものがあった。同じ同胞でありながら、20年以上日本に住み、デラシネ(根無し草)を気取り、納得と不安の両輪の間でバランスをとっている自分には、新宿の若い世代の韓国人に対する特別な関心はなかった。知人からこの冊子が送られてきて、目の前に置かれた時、私に「ほら、開けてみてよ。韓国人だったでしょう？ 今もそうでしょう？」と催促するような、問いただすような、自分の中の声に振り回されるような感じがした。そして、ページを開いた。

ナラティブだの、アイデンティティだの、「顔」だのという言葉が動きだし、私に語りかけ、こんがらかせる。私はそれらにどこにも漂流されまいとしていた。語りたいけど、この人たちみたいに語れない自分がいる。ナラティブされた彼らの語りには深い思考がないように感じた。どちらかというと軽く、まるで世界の一市民のように、渡り鳥のように、あちらこちらをわだかまりなんかないように、一見自由そう。でも 私には彼らのもどかしさが垣間見える。

世界のどこにも、安住でき自由になれる場所なんてない。いざこざがあり、理不尽な体験をすることもある。それを時には語り合い、そして再び自由を求めて生きる。この日本という国、東京という首都、新宿というまちは、こうした生き方にふさわしいのだろうか。

ナラティブには語り手による微調整とも言える“解説”的な面があ

る。それを聞き取る側、そして、それを読む側にもそれを“解説”している面がある。テレビのドキュメンタリー番組のナレーター（解説者）のように、第三者的に語られるのが私にはなぜかしつくりくる。インタビューを読みながら私は考えた。“この人は自分ではこう言うけれど、他の人はどんなふうに読むのだろうか？”と。もうひとつ踏み込んだ言葉が欲しい。世代の違いかもしれない。私はもう完全な韓国人とはいえないからだろうか。

今の私はインタビュー集の中の人たちのように、日本語さえできればたくさんチャンスがあるのに、とはもはや思えない。代わりに、以前の私、過去の私に、タイムラグはあるものの、似ている自分に出くわして、狼狽しながら、でも、ナラティブでないところの（語られてない）、語られないところで共感したい衝動を感じた。

<インタビュー 11>

Kさん（30代・男性） 「日本で研究者に」

2010年7月8日、ソウル出身、大学助手、日本滞在歴12年

インタビュー担当：河合優子

◇ 日本に来日するまで ◇

Kさんは、高校卒業後、韓国の大に入学し、社会学を専攻した。社会学にしたのは、「偏差値と成績、もっぱらそれだけ」だったという。大学2年まで終えたところで、兵役のために休学し、1998年6月に除隊した。新学年度は翌年の3月からのため、その間の期間を利用し、その年の10月、初めて日本にやってきた。先にKさんの兄が日本に留学しており、来日には不安はなかったが、日本語はそれ以前にまったく学んだことはなかった。

◇ 日本語学校時代 ◇

「東西南北」という漢字も書けないくらいだったが、日本語の上達がとても早く、来日後5ヶ月目に受験した日本語能力試験1級の模擬試験で、400点中380点をとった。日本の大学に入学することを考えはじめ、入試ではとりあえず日本語を読めて書けるようにならなくてはならないと、漢字や単語をひたすら書いて覚えるという方法で日本語を勉強したという。

◇ 大学入学してから ◇

来日した翌年には大学受験に合格し、経済学を専攻した。やはり読み書きを中心に日本語を学んできたため、「大学に入って、実際に1年生のときはほとんどしゃべれなかったんですね。特に敬語だけの日本語なんで、結構距離感があるんです、やっぱり友達と。タメ口がきけないので」とKさんは話す。最初の1年はほとんど日本の友人ができなかったそう

だ。

それで考えついたのは、韓国語を教えることだった。大学内にビラを貼り、ボランティアで韓国語を教え始めた。それがきっかけで、だんだん日本人の友人もできるようになっただけでなく、韓国語講師としての仕事も紹介してもらえるようになった。民間企業や大学の短期講座などで、韓国語講師を8年間務めた。韓国語を教えることについては、「大変だったんですよ。やっぱり準備するのも大変でしたし、私も改めて母国語を勉強しなきゃいけないので。でも、意外と向いていたっていうか、楽しかったんですね、人を教えるのが。韓国語を教えるのが楽しいんじゃなくて、何か自分が持ってるものを伝えて、それがきっかけになっていろいろと交流が広まっていくっていうのがすごく楽しくて」という。大学では知り合えない、サラリーマン、OL、医者など幅広い層の日本人たちとの交流ができたという。今でも教えた人たちとつきあいがある。

◇ 住む場所 ◇

最初は新宿区内に住んでいたが、神奈川県の郊外の一軒家に3年ほど住んで新宿区まで通学していたこともある。大学からはかなり遠かったが、犬と一緒に住めるところを探していた。そこでは、地域のコミュニティが残っており、近隣の人との交流もあり、まるで韓国の田舎のようだったという。しかし、やはり通学には不便だということで、現在は都内に戻って生活している。郊外での生活について、「一軒家だったので、やっぱり外国に1人で住むっていうのは、とても不安なんですよね、男であっても。なので、やっぱり自分から、求めるようになるんですよ、人のつながりっていうのを。例えば地震が起きて食水とか配給されるときに、自分だけ取り残されたらどうしようみたいな・・・やっぱり自分から前向きに求めていくっていう、そういう姿勢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ここ（都内）だとほとんどそういうのを感じない」。

コリアン・タウンと呼ばれる新大久保について、Kさんは次のように

語った。「そこに韓国人がいっぱいいるから行きたくなっていう意味じゃなくて、もしそこが韓国の、いわゆるコリアタウンじゃなくても、多分行かないと思う。なかなか行きたくない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ね。ちょっと暗い感じがするんです、どうしても。多分歌舞伎町ともリンクしてくるとも思うんですけども」。しかし、韓国の食材を買う目的や、留学生会の集まりなどで、新大久保に月 1、2 回は出かける。

◇ 日本社会について ◇

日本での経験は、「多分、運のいいほう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も、それほど嫌なことは今まで経験していないんですね」という。ドラマ『冬のソナタ』の人気が出る前と後では、韓国人であることの意味が、大きく変化したことを実感した。日本社会については、「今の日本って、結構いろいろ言われてるんですけども、私から見たときには、ものすごいいい国だと思うんですよ。いろんないいものを持ってる国なんですね。例えば、本当に一般的な話をするときの、何というんですか、丁寧さだとか、そういうのもありますし、やっぱり周りに迷惑をかけないような、そういう意識がきっちりと、みんなそういう意識を持ってるだとか、やっぱり社会的なインフラだとか文化的なインフラを、すべてを見ても、やっぱりいいものっていっぱい持ってるんですよ」という。

◇ 歴史問題 ◇

日本の植民地支配に関わる歴史問題についても、熱心に語ってくれた。「よく考えてみると、その当時の歴史的な問題になってる当時の被害者、いわゆる被害者の人たちがまだ生きてるんですよね。あと 10 年も残ってい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まだ生きてるっていうことは、過去の問題じゃなくて現実問題だと思うんですよ。だから、本当に日本としては、日本が歴史的な問題にかかわったときに、周りの国々が持ってるイメー

ジを変えるチャンスって、あと10年も残ってないと思うんですよ。この間に何をどうするの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なんで、それぞれ果たすべき役割があると思うんですよ。ただ、若者のような、全くそのような、直接的な責任も持っていない人たち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それをちゃんと知ることによって、この問題について韓国人、あるいは中国人と話すときに、やっぱり真剣な姿勢が自然と持てるようになるんじゃないのかなと思うんですね。」

◇ 将来について ◇

大学卒業後、大学院に進み、現在は大学で助手を務め、講師として大学で教えながら、博士論文の完成を目指している。将来は、日本で研究者として仕事をしたいと考えている。「周りの日本のいろんな方々に助けていただいてここまで来るので、ちょっとこんな言い方よくないかもしないんですけども、何らかの形で私も何かをこの社会にしたいんですね・・・自分でできることっていうのは、何か書いて研究をしたり、あるいは学生たちを教えたりすることぐらいなので、自分の実力がどこまでいけるのかっていうのは別として・・・しばらくは日本に残ってやっていきたいなという気持ちは、正直あります」と抱負を語ってくれた。

＜インタビュー 12＞

Rさん（20代・女性） 「スペインにも留学したい」

2010年7月13日、釜山出身、大学生、日本滞在歴4年

インタビュー担当：河合優子

◇ 日本に来日するきっかけ ◇

Rさんは、釜山出身で、2006年9月に来日した。韓国で高校卒業後、大学に入学し、新聞放送学科で1年半ほど勉強した。日本語は高校、そして大学でも学んだ。Rさんの通っていた高校では、英語のほかにもう一つ第二外国語の授業をとらなくてはならなかつたが、日本語の授業しかなく、高校2年生までは日本語の授業は必修だった。大学に進学してからも、第二外国語に日本語を選択した。2年生の夏休みに、休学して海外でボランティアをしようと思っていたところ、日本人男性と結婚して神奈川県に住んでいた従姉に、日本で日本語を勉強してみないか、と誘われた。最初は3ヶ月の観光ビザで日本にやってきた。

◇ 日本語学校時代 ◇

日本語学校で学習を始めて1ヶ月ぐらいたつと、とてもおもしろくなり、ビザを延長・変更して本格的に日本語の勉強に打ち込んだ。Rさんの通っていた神奈川県の日本語学校はカザフスタン、セネガル、ロシアなど世界のさまざまな地域から学生が集まっており、その人たちとの交流がとても楽しかったという。1年6ヶ月後に、関東圏にある大学のメディア系学科に進学した。

◇ 大学に入ってから ◇

大学に入学したあと、最初は日本人の友人があまりできなかつたという。大学でも留学生は日本語の授業を受けなくてはならなかつたため、そこで知り合つた中国人の留学生などと仲良くなつた。そのうち、同じ授業やゼミで知り合つた、日本人の友だちもできていつた。

日本と韓国での友人関係の違いに関して、日本の友だちは恋愛の話が多く、政治や経済など、もっと幅広い話がしにくいと感じている。それから、友人間での親しさの表現のしかたに関しても、日本と韓国の違い

があるという。「例えば韓国人は、一応親しくなったら、すごいそれを表現をするっていうか・・・。日本人の友達だと、そういうのがなくて、あと、挨拶はするけど、何となく遠い感じがする」。日韓の歴史問題については、あまり話題にしないようしているが、話してみたいという気持ちはある。しかし、外国語である日本語でそれについて話すことは簡単ではなく、「言葉を慎重に選ばなきやいけないと思ってます」という。韓国語もわかるような人であればいい、と R さんは話す。

◇ 新宿・新大久保 ◇

新宿には 2006 年に来日して、2009 年の夏までに、合計しても 5 回ぐらいしか行ったことはなかった。R さんが始めて新大久保に行ったのは、2009 年の 8 月だ。「新宿と新大久保は別のもの」だという。「新宿は、新大久保とすごい近いんですけど、新宿のほうは日本人が多くて。。。新大久保は、本当に韓国みたい。初めて行ったときはびっくりしました」。それまで従姉の家で一緒に暮らしていたが、その家を出ることになり、2009 年の 8 月から 3 ヶ月間、専門学校に通っている韓国人の友人と、新大久保でルームシェアをして暮らした。

新大久保は、住みやすいが、逆に少し寂しく感じることもあったという。新大久保以外の場所では、一人で行動することには抵抗はないが、新大久保は、韓国人が多いため、常に誰かと一緒に行動するという韓国文化に従っていないと、孤独感を感じてしまう。「この辺（大学の近く）だと、1 人でやっても 1 人じゃないですから、本当に。1 人でやってる人が私 1 人じゃないから、別にいいかなって感じなんですけど、そこでは 1 人でできないんで。この辺ではコーヒーショップとか結構 1 人で行くんですけど、新大久保に住んだときは、ちょっと遠めの新宿まで.....」。ルームシェアをした友人と、とても仲良くなつたこともあって、それ以降は、月に 1、2 回は新大久保に行くようになった。新大久保では、ラーメンやコチュジャンなどの韓国の食材を購入するのだそうだ。

◇ アルバイト ◇

アルバイトは中華料理屋や居酒屋でも経験した。現在、住んでいる関東圏の中都市で、アルバイトを探すのは難しい。「ネットとか情報誌とか

見て電話して、最初に言って、『私は外国人なんですか？』って聞いたら、速攻で断るところもあるし……』。「あまり外国人がそんなに多くないから、このあたりは。あまり雇ってくれるところがそんなに多くはない」という。

中華料理屋では、あまり普段の生活では話す機会がないパートで働きに来る女性や年配の常連客との会話が楽しかった。同年代の大学の友人が使わない日本語が出てきたり、そのような年代の人の日本語の聞き取りは難しく、もう一度言ってもらったりすることも多かったが、逆にそれがおもしろかった。居酒屋では、言葉だけでなく、従業員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しかたの違いも学んだという。例えば、韓国の飲食店では、客に呼ばれたとき、手がはなせないときには、呼ばれていることを認識しておくだけで、その客に対して「少々お待ちください」などと返事をすることは、あまりないそうだ。しかし、同じような場面で、Rさんは客の一人から「なぜ返事をしないのか」と怒鳴られてしまった。

今は韓国語の個人レッスンをしている。大学1年生だった2008年、日本語学校の先生の紹介で、もう一人の韓国人留学生と一緒に、高校で1学期間、韓国語を教えた。対象は、修学旅行で韓国にいく高校生である。それがきっかけで韓国語を教えることの楽しさを知ったという。大学で日本語教育の授業を履修しながら、それを韓国語のレッスンにも役立てている。

◇ 将来について ◇

大学を卒業後は、企業で広報関係の仕事をしてみたいという希望を持っている。できれば日本で就職したいと思っているが、どうなるかはわからない。そして、3年ぐらい働いたら、大学1年から学んでいるスペイン語の勉強をするためにスペインに留学してみたいそうだ。Rさんのお母さんが好きだという韓国の女性旅行作家の本に触発されたという。

<インタビュー 13>

LS さん (20代・女性)

「懐かしい町並みを残している国 にっぽん、
たくさんのことを見て、いっぱい体験してみたい国 (정겨운
나라 일본, 많이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은 나라)」

2010年7月17日、ソウル出身、日本語語学校在学、滞在4ヶ月目
（インタビュアー：李 坪鉉（インタビューは韓国語で行われた））

◇ 약력 및 일본에 오게 되는 계기◇(略歴及び日本に来るきっかけ)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교 시절 읽은 「인어공주를 위하여」라는 만화를 계기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소녀. 그때 당시만 해도 만화 관련 학원 등이 활성화되지 않았기에 같은 취미의 친구들이랑 정보교류를 하고, 모임에 참가해서 만화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러다 점점 인터넷이 활성화 되기 시작하고, 만화행사인 「코믹」「마카」등이 서울에서 열릴 때 참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활발한 정보교류를 하게 된다. 그러나 만화 가에의 꿈을 키우며 교류모임이나 대회에 참여 하는 것에 부모님의 반대도 심해서, 많이 싸웠다고 한다. 그런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고, 물론 입상하면 대학특전의 영광도 있었기에, 권위 있는 만화대회인 「카툰대회」에 참가할 결심을 하게 된다. 그때 대상 을 받게 되고, 쉽게 대학도 가고 부모님의 반대도 극복할수 있게 된다.

대학에서 2년간의 전문 공부가 끝나고, 졸업과 동시에 이현세 만화 가의 문하생으로 입문하지만, 지금껏 해온 이론과 만화세계의 실전과의 겹으로 인해 자신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6개월간의 문하생 생활을 끝내고 방황하던 중, 친구를 통해 캐리커쳐라는 세계를 알게 된다. 그림실력을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함과, 돈을 벌어야 했기에 프리랜서로 일하던 중, 일러스트를 하는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광고, 작품, 게임, 동화, 교과서 등 그 활용의 광범위함에 매력을 느껴 일러스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일러스트로 2년간 생활하다, 일본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에게서, 일본은 한 캐릭터를 만들면 많은 분야에서 각각 상품을 만들어 잘 활용한다는 세분화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한국의 캐릭터 생명이 2·3 년으로 짧은 것과 비교해 볼 때, 꼭 한번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고 결심하게 된다. 물론 20 살 때 세이카(精華) 대학에 가고 싶어 오오사카에 여행 왔던 경험이 있었지만, 친구가 수속했던 유학원에 가서 일본유학의 수속을 거쳐, 신쥬쿠의 어학원에 오게 된다. 일본에 오는 것 또한 외국에 나간다는 것 자체로 부모님이 반대 하셨는데, 마침 일러스트로 작업했던 영어동화책이 출판되어, 그 책을 보여 드리면서, 「내 가능성을 더 열고 싶다. 더 공부하고 싶다」고 설득하여, 말씀이 많지 않은 부모님으로부터 「잘하구, 몸 건강히 있구」라는 말씀을 듣고, 유학 길에 오른다.

◇ 일본에서의 생활 ◇(日本での生活)

본인은 어학교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이유인즉,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 룸메이트가 있어서 불편함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일본어를 잘 못하는 다른 어학교 친구들은 전철 타는 것 하나부터 쿠약쇼에 가는 것 등 멀리 여행가는 것도 꺼려한다고 한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기에 마음의 의지할 곳 또한 있어, 전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같다.

행동반경은 주로 집에서 학교, 교회로 이루어 지는데, 학교가 신쥬쿠에 있기도 하지만, 친구들과의 모임 등은 대부분 신쥬쿠, 신오오쿠보에서 이루어 진다고 한다. 신쥬쿠의 어학원에 다니는 초기 유학생들의 생활반경이 대부분 이러한데, 신쥬쿠를 중심으로 모여 있지만, 모처럼 일본에 왔으니까, 이곳을 벗어나서 좀더 일본인이 많고, 일본적인 분위기의 곳에서 일본의 문화를 한껏 체험하고 싶은 것이 유학생들의 또 다른 바람이라는 점이 아이라니다. 언어가 안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일본인과 사귀고 대화도 하고 싶지만, 좀처럼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점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좀더 많은 정보 교류가 이루어 질수 있는 만남의 장이나, 전문분야별로 조언과 교류를 할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듣고, 초기 유학생들에게 있어 필요한 점과 현실을 느낄수 있었다.

◇ 일본에 대한 이미지 ◇(日本に対するイメージ)

현재 숙소가 있는 곳이 오오츠카의 주택지로, 일본이란 곳이 의외로 참 정겹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동네의 오래된 주택양식이며,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 나와서 소담을 나누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 강아지, 고양이가 많으며 한적한 풍경은, 고향인 서울에서는 이제 보기 힘든 풍경이기에 잊어버린 과거의 정겨움을 느끼는 듯하다. 특이한 문화로는 신사를 비롯해, 동네 어디를 가도 곧 잘 눈에 띄는 빨간 마후라를 한 조그마한 불상(お地蔵さん)이 있는 미신적인 공간은 문화 충격 이었다고 한다.

또한, 반찬가게가 참 많다는 것이 신기했는데, 일본주부들은 만드는 것 보다 주로 사서 먹는구나 라고 느끼며, 한국의 어머니를 떠올렸으리라 본다.

아직은 일본인과 많이 교류해 보지 못했지만, 어학교의 일본어 선생님은 참 야사시이(やさしい) 하다고 표현한다. 패션이나 주위의 경관도 유심히 본다는 발언으로부터 일러스트로서의 기질이 엿보였다.

◇ 장래의 계획 ◇(将来の計画)

일년 뒤 어학원이 끝나면, 한국에서의 경력을 살려서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뿐으로 처럼 재미있고 유익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 하나의 캐릭터가 탄생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캐릭터를 활용화 한다는 일본의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나가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 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적인 정서를 갖춘 LS 씨가 일본에서 느끼는 정겨움을 잘 표현해 낸다면 멋진 캐릭터가 탄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インタビュー 14>

J・E さん (20代・女性) 「理系界の女性研究者を志す」

2010年7月18日、ソウル出身、大学4年生、日本歴5年4ヶ月

インタビュアー：吳 世蓮 <バイリンガルインタビュー>

◇ 自己紹介 ◇

일본에 온지는 벌써 5년 하고도 3,4 개월정도 지났구요. 지금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지금은 대학원진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はい、私の名前は金智恩 (キム・ジウン) です。日本に来て5年と3, 4ヶ月程経ちました。今は大学4年生で、大学院進学のために勉強しているところです。) 태어난 곳은 부산인데, 초등학교때 서울로 이사를 가서 서울에서 지금 거주중이구요, 서울에서 가족들이 거주중이구요.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세가족입니다. (生まれたのは釜山ですが、小学校の時ソウルに引っ越して、家族は今ソウルに住んでいます。母、父、私の三人家族です。)

지금은 신주쿠에 있는 동경 이과대학교 、 이공계만 있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든요. (今は、新宿区にある東京理科大学という理工系のみの学校に在学中です。) 전공은 응용학이에요. (専攻は応用学です。)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료들을 만들거나 주로 그 재료를 만들어가는 쪽에 가까운 공부를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私たちの生活に密接な関係のある材料を作ったり、材料の生産方法についての勉強をしています)

◇ 大学生活 ◇

처음 학교 입학했을때는 일본에 대한 별 차이 없이 그냥 하면 다 잘되겠지 이런생각이 커서 그냥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힘들더라고요. 뭐 내용도 수업내용도 많이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차 적응해 나가다 보니까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된거 같습니다. (初めて大学に入学した時、日本の大学について、あんまり大した違いはないだろうと思っていたのですが、思ったより大変で、授業の内容もとても難しくて。でも徐々に慣れてきて、あっという間に3年生になり、4年生になったと思います。)

중간중간 서클을 할생각도 있어가지고 1학년때도 좀 들어가보고 2학년되어서도 또 다른 서클에 들어가봤는데. 그런 서클이 방학때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구요. 너무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한데, 저는 그냥 방학때 되면 한국가서 쉬고싶고 그런마음이 커서 아무래도 그런 열심히 하는 애들이랑은 좀 개네들한테 메이와쿠가 아닐까 해서 서클을 거의 방학기준으로 해서 많이 그만뒀죠. (サークル活動をしようと思い、1年の時、入ったり、2年の時もまた他のサークルに入ったりしましたが、殆どのサークルが夏休みや春休みに活動をしていました非常に頑張っている子もいるんですが、私は休みさえあれば韓国に帰りたくなったりしたので、このような気持ちが頑張っている子たちに邪魔になったり、迷惑掛けると思って、夏休みを区切りにやめました。)

◇ 大学の友達 ◇

大学には韓国人の留学生があまりいません。ほとんど日本人の友達が多いため、私は日本・韓国の友達を分けて考えていません。実際、日本と韓国と分けなくとも、人間として向き合ってからそんな違いをまだそこまで感じられないです。どっちかというと男の友達との差が見えますけど(笑)、女の友達はそこまで差が見えないです。例えば、私は実際、そこまで感じられなかったけど、なんか、周りから言われてやっぱりそういうだなーと思っていたのが、兵役問題に関して。韓国の男の友達の方が、性格の強みが出るっていうかそういうのはちょっと見えました(笑)。

◇ 新宿区との関わり ◇

学校が飯田橋にあるため、新宿区内での生活が多いです。新宿区のイメージは、本当に東京の真ん中っていう感じです。凄い活性化されている反面、神楽坂みたいにすごい住宅街とか落ち着いているような場所もあって、色んなものが混ざっている感じ。外国人もいっぱいいるし、最初住むにはけっこういいかなというイメージもあります。

◇ 将来の夢 ◇

なぜ、大学院に進学しようと思ったのかは、最初、それを決めるまで、本当大変でした。正直、理系だから当たり前のように皆、進学するって

イメージがあったので、自分も何となく進学しなきやいけないのかなというイメージがあったけど、実際勉強を始めたら、責任感なく、ただみんなが行くから行くという感じでは行きたくなかったです。もし自分が本当に研究したい分野とかが見つかったら、行くけど、それじゃなかつたら、就活するって気持ちで、去年から就活もちょっと同時にやったのですが、その内、自分がしたい勉強が明確に見えてきたし、だったら、私も進学して、もうちょっと自分のスキルや研究力も磨きたいと思い、大学院への進学を決めました。将来の夢は具体的にはなってないけど、研究職に就き、色んな技術を学んで、学校だけじゃなくて、企業などでも学べることがいっぱいあると思います。そういう力をつけてそれから本当に実務に近いような仕事をしてみたいです。どっちかというと、そういう色んなところのかけ橋のような、そういう仕事のできる職を探したいです。

＜私のナラティブ：自分と新宿区との関わり＞ 一心の癒しの場所、コリアンタウン－

呉 世蓮

私は日本に留学に来て今年で7年目になります。7年間の留学生活を語るには、新宿区との関わりを欠かせて語ることはできません。なぜなら学校、住居、そして人との関わりのすべてが、東京都心の西部に位置する新宿区で行われているからです。つまり新宿区は、私にとって生きている歴史のそのものなのです。

なかでも新宿区というと、一般的に新宿駅を中心とするエリアが思い浮かぶと思います。東京都庁をはじめとする超高層ビル群が広がる西新宿、大規模な商業施設が並ぶ新宿、夜はとても派手な町となる歌舞伎町、韓国系ショップが並ぶ大久保など、このエリアは「新宿区の代表」と呼ぶにふさわしい個性豊かな顔を持っています。

特に、私は「新宿区の代表」の中の、大久保、JR大久保駅・新大久保駅を中心に7年間の日本での留学生活を過ごしています。

日本一の「コリアンタウン」と称されるJR大久保駅・新大久保駅の周囲は、江戸時代までは農村であり、明治時代になるとつじの景勝地として近郊から多くの観光客が訪れていたそうです。終戦後に在日コリアンなどが集まるようになり、1970年代頃から韓国料理店が少しづつ営業をはじめ、現在は韓流スターやドラマなどの人気により、日本各地から遊びに来る観光客も増えたそうです。

実際、私が来日した当時（2004年）と現在の新大久保の周囲を比べると韓国人だけではなく、日本人の観光客も著しく増えたことがわかります。以前は新大久保の韓国料理屋さんに入ると韓国人が殆どで、まるで韓国にあるお店に入ったかのように、店員さんから韓国語で話しかけられたりもしました。最近は日本人のお客さんも増え、お店によっては日本語で対応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が、こちらから韓国語で「アンニヨンハセヨ」（こんにちは。）と挨拶をしながら、お店に入ることも多くなりました。日本にいる韓国人として非常に嬉しく思います。

今は、韓流のブームやコリアンタウン、大久保の町の人々のお陰で町

全体が活性化されていますが、昔は治安があまりよくないというイメージから、日本人も大久保・新大久保に行くことを控えていたと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しかし、韓国人として韓国の文化、特に食文化を知つてもらうために日本人の友達をお家に招き、韓国料理を作つて食べさせたことがあります。初めて韓国料理を食べた友達は韓国料理が大好きになり、私と一緒に新大久保に行ってみたいと言つてくれました。新大久保に初めて行った友達は日本の中の韓国を体験し、今はすっかり韓流ファンとなりました。

日本と韓国の文化交流の場としての新大久保。日本にいながら韓国の食べ物が懐かしくなると、お袋の味を探しに訪れる新大久保。食べ物から癒されるの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町の雰囲気から韓国にいる気分となり、コリアンタウン、新大久保にいるだけで心が癒されるといつても過言ではないと思います。

ここ、JR 大久保駅・新大久保駅の一帯でグルメなウォーキングもたまにはいいかも知れません。

参考資料

新宿区公式ホームページ

<http://www.city.shinjuku.lg.jp> (2010年8月12日閲覧)

〈나의 내러티브: 신주쿠구와의 관계〉 —마음의 휴식처, 코리안타운—

오 세연

저는 일본에 유학 온지 올해로 7년째입니다. 7년간의 유학 생활을 이야기 하려면, 신주쿠구와의 관계를 빼고 이야기 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사는곳,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 동경 도심의 서부에 위치한 신주쿠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주쿠 지역은 저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역사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주쿠 지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주쿠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떠올릴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경 도청을 시작하여 초고층 빌딩들이 펼쳐지는 서(西) 신주쿠, 대규모인 상업시설이 즐비한 신주쿠, 밤에는 매우 화려한 거리가 되는 카부키쵸, 한국계 가게가 많이 모여 있는 오오쿠보등, 이 지역은 「신주쿠구의 대표」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개성 넘치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신주쿠구의 대표」 중의 신오오쿠보, JR 오오쿠보역 · 신오오쿠보역을 중심으로 7년간의 일본 유학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제일의 「코리안 타운」이라고 칭하는 JR 오오쿠보·신오오쿠부의 주변은, 에도시대까지는 농촌이었고, 메이지시대에는 철쭉의 경승지 (景勝地)로서 근교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2차대전후, 재일동포등이 모이기 시작하여, 1970년대부터 한국요리점이 조금씩 영업을 시작하고 현재는 한류스타와 드라마등의 인기로 인해, 일본 각지에서 놀러 오는 관광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일본에 온 당시(2004년)와 현재의 신오오쿠보의 주변을 비교하면 한국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 관광객도 증가한 것을 현저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오오쿠보의 한국요리점에 들어가면 한국인이 대부분이었고, 마치 한국에 있는 가게에 들어간 것처럼 점원으로부터 한국어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인 손님도 늘었기 때문에 가게에 따라서 일본어로 대응하는 곳도 있지만,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가게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 졌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인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류 블과 코리안타운, 오오쿠보의 지역 사람들 덕분에 거리 전체가 활성화 되었지만, 예전에는 치안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미지 때문에 일본인도 신오오쿠보에 가는 것을 꺼려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문화, 특히 음식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일본인 친구를 집에 초대하여, 한국요리를 직접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요리를 먹은 친구는 한국요리를 좋아하게 되어 저와 함께라면 신오오쿠보에도 가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신오오쿠보에 처음으로 간 친구는 일본 안의 한국을 체험하고, 지금은 완전히 한류 팬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의 장으로서의 신오오쿠보.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의 음식이 그리워질 때, 어머니의 맛을 찾으러 방문하는 신오오쿠보. 음식으로 인해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거리의 분위기로부터 한국에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여기 코리안 타운, 신오오쿠보에 있는 것 만으로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JR 오오쿠보역 · 신오오쿠보역의 주변을, 가끔은 미식가처럼 산보해 보는 것도 멋있지 않을까요.

参考資料

신주쿠구 공식 홈페이지

<http://www.city.shinjuku.lg.jp> (2010.8.12 열람)

◇ インタビュー 15 ◇

Hさん（20代・女性）「日本と韓国の関係をもう一步進めたい」

2010年7月23日、ソウル出身、日本語学校生、日本在住1年

인터ビュー：藤田ラウンド幸世

◇ 略歴と家族 ◇

Hさんは1989年生まれ、ソウル出身。中学・高校と一生懸命受験勉強をした。特技として、音楽、特に声楽に長けていた。大学は、声楽科のある念願の大学に合格。しかし、一学期の後に、自分のやりたかった方向性と合わず、悩む。大学一年のときに、ヨーロッパの音楽院に移るために入学試験を受けに行くが、受からず、その後、日本への留学を目指すことになる。決心をすると、行動に移す性格なので、ヨーロッパから帰国後、留学院に出向き日本の留学を具体的に考え始める。翌年、大学一年を終わらずに、退学をし、すぐに日本留学のための資金のため、就職。半年後、日本に留学を果たす。

現在は、日本語学校に在学しながら、希望をする大学への入学試験を目指している。

◇ 中学で日本語能力試験3級に合格

Hさんは、中学二年生の担任教師が「日本語」の先生だった。日本語が上手なだけではなく、イケメンの先生だったため、がんばろうという気持ちになって、第二外国語としての日本語を勉強し、結果として、中学の間に日本語能力試験3級に合格をした。日本のポップカルチャーに触れたのは、中学三年の時で、初めてみたマンガは『ナルト』だった。

中学の時の成績がよかつたため、学校の先生が推薦をしてくれて、伝統のある有名女子高校に入学できた。この高校では、第二外国語として日本語か中国語を選ばなければならなかつたが、Hさんは日本語をいつのまにか選んでいた。

◇ 高校の時に日本にホームステイ

高校一年生から二年生に上がる時に、学年から10人が選ばれて、埼玉県の高校にホームステイと留学を経験する。ホームステイでは、「自分のプライドが傷ついたというか」、全然、話が通じることがなく、うまくしゃべれ

ないのでショックを受けた。ホームステイ家族とは、ことばが通じなかつたのであまり仲が良かったとは言えない。しかし、このホームステイ留学がきっかけとなり、帰国後にはこのままじゃダメになると一念発起し、日本のドラマやアニメを全部ダウンロードして、いつでも流すようにした。内容が全然わからなくても、字幕を見ながら内容を推測し、3回くらい繰り返し見ていた。その成果が表れたのが、ホームステイをした一年後に今度は日本から学生が来て、Hさんの家にも受け入れることになった時だった。自分も知らないうちに、ホームステイに来た女子学生と日本語でしゃべっていた。このときの女子学生とは、今でも連絡を取り合う友達となっている。

高校時代には、アニメーションの『ブリーチ』や『銀たま』が好きになり、小説は吉本ばななや推理小説の東野圭吾が大好きになる。音楽は、小学6年生の頃から、嵐が好きになり、日本語がわかるようになってからもっと好きになった。

◇ 韓国で念願の大学に合格

韓国社会では、Hさんが高校に進学する頃に、政権が変わり、教育政策も変化したため、高校一年生の成績が一番大事ということになった。そうした余波がHさんの生活にも波及してくる。具体的には、高校が4時に終わると、5時までに塾に行き、5時から8時は勉強をして、8時から8時40分くらいまでは塾の近くのファストフードのお店でおにぎりを食べて、その後、また12時まで自習をする、といった勉強漬けの毎日を送ることになった。塾は12時に終わった後に、車で家の前まで送ってくれる。

帰宅すると、お風呂に入り、それから英語と韓国語（国語）を復習した。塾の先生から「何してる？」と電話がかかってくるので、寝る前に当日やったことをまとめ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この塾は、入るときにテストを受け、テストの成績でクラスを分けていた。そのくらい、どこにいっても成績が重視され、偏差値の高い大学を目指すように励まされていた。中学も高校も成績がよく、声楽が得意で、母親とともに、いい大学にいくために必死になっていたが、今振り返ってみると、当時はいい大学を目指すことに対して疑問を持っていなかったという。

大学は念願どおりの大学に合格し、声楽科に入学をする。

◇ 自分で選択をした日本留学

Hさんは、大学に入ってから、自分のやりたかった方向と大学の勉強が一致せずに違和感をもったため、夏休みにヨーロッパの声楽科のある学校に留学を前提として入学試験を受けに行く。イタリアの音楽院の試験を受け、実技で歌を歌ったが、受かるることはなかった。そのときはスーツケースを持ってそのままヨーロッパ旅行をする。

「ヨーロッパの旅行が終わって、その時、いろいろ考えて結論を出して、それで、留学院（韓国にある留学を斡旋・仲介所）に行ったんですね。」この時には、せっかく入った念願の大学に戻ることは考えず、日本への留学に方向性が固まったようだった。一度、決心すると、Hさんの行動は早かった。4ヶ月後、大学の一学年が終わる翌年の1月に退学し、それからは日本の留学資金を貯金するため、化粧品販売員として就職をする。

Hさんは親の方針で高校の時から、必要最低限のお金以外はもらわなかつたので、週末にアルバイトをしていた。Hさんは、「ホテルでサービングしたり、結婚式の手伝いでした。でも、専攻が音楽だったから、ピアノも弾けるし、歌も歌えるから、週末はそのアルバイトをして結構もらったんです」。このアルバイトで得たお金をもとに、友人と二人で株をして、お金を儲ける経験もした。リーマンショックが始まる直前に止め、そのときに株はすべて売却をした。その他にも、10年くらい弾いたピアノを売ったりして、日本留学に向けて、次々に自分で資金を工面していった。

◇ 日本の生活

Hさんは、来日して、新宿区の日本語学校に入学をする。前はパン屋さん、そして今は、自分が常連客だったコンビニでアルバイトをしている。来日直後は寮に住んでいたが、今は、先輩から引き継いだアパートに住んでいる。韓国人のネットワークがインターネット上に多く構築されているが、Hさんにとっては、「その中ですごく良い情報もありますが、自分にとっていらない情報がほとんど」で、そうした情報は使わないという。

日本は韓国よりも先進国なので、今回、行政の業務処理が遅いので驚いた。外国人登録証の手続きのために区役所に行ったら、登録証をもらうまでに2週間くらいかかった。韓国は行政の業務がすごく速いから、日本の行政は正直にいって、一体、何してるの？って思うくらいだった。

日本に来て予想以上に良かったことは、電車のシステム。人身事故が起こったりしたら、すぐに流れて、「どこどこの駅で人身事故が起きております、申し訳ございません」というのには、すごいなと思った。

逆に日本に来てから韓国のことを考えたときに、韓国はやっぱり IT に強いと思う。悪いところは、「言論？新聞とか、インターネットで流している新聞社とかの記事が汚いなって思ったんです」。例えば、「ワールドカップの時、韓国が勝った時に日本でなんかこんなに悪いコメントがいっぱいありましたって、それを記事にするんですよ。そんなコメントをブログに書く人は、日本人全体がそう思っていますっていう風に記事を書くから、それは汚いなって思ったんです。」

◇ 近い将来の夢

今年の秋には、現在目指している日本の大学の国際関係学科の入学試験を受ける予定。そこでは、国際関係について学び、特に韓国と日本の関係をもう一歩進めるための外交問題に取り組み、外交問題を少しでも解決することを学びたい。その学科には、大学を 3 年で卒業し、大学院博士前期を 2 年で、つまり 5 年でマスターまでの資格を取れる制度がある。当面のところ、日本には 5 年住み、その後、英語圏のイギリスとか、アメリカに行って、33 歳前後に博士号を取りたい。その後で、韓国に帰国し、外交官の試験をうけるつもりでいる。

<インタビュー 16>

PHさん（40代・女性）

「いつでも帰るという他国から、わが子が育つ国になった日本、これからは賢く日本を満喫し、子どもたちも両国の良さを学んでほしい（언제든 돌아갈 타국 땅에서 내 자녀들이 자라는 나라가 된 일본）」

2010年8月7日、ソウル出身、自営業、滞日9年目

인터ビュー：李 坪鉉（インタビューは韓国語で行われた）

◇ 일본에 오는 계기와 첫 일본생활◇(来日のきっかけと初日本生活)

일본에 온지 9년째를 맞는 40대의 여성분. 신오오쿠보에서 통신관련사무실을 운영하며, 남편의 무역업도 겸업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과 함께 4인 가족이 신오오쿠보에 살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같은 통신계열의 사업을 하고 있었고, 결혼후에 남편이 하던 직업상 일본어가 종종 필요했기에, 좀더 일본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심으로 일년간의 계획으로 유학 길에 오른다. 그러나 일년 뒤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옴으로써 일본에서의 첫 생활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일본어를 못한다라는 언어문제 이전에, 타국에서 두남자아이를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벼겁고, 집이 좁고, 이동의 불편함과 생활고 등으로 마냥 일본이 싫기만 한 매일매일 이였다고 한다.

근처에 아이들이 놀 만한 곳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개구쟁이 두 아이들을 마음껏 놀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보육원 제도를 알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놀리겠다는 일념으로 남편 몰래 일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나 일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자신이 일할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중, 일본에 온지 6개월만에 신쥬쿠에 있는 한국계 회사에 지원해서, 한국에서의 경력을 사서, 일단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한다.

아침 6시에부터 준비해서 두 아이를 각각 다른 보육원에 보내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약 두 시간에 걸쳐서 신쥬쿠에 나오게 된다. 일이 끝나는 6 시면 총알같이 달려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했기에, 신쥬쿠역까지 매일같이 카부키도오리를 달려야만 하는 일과 였지만, 일이 너무 재미있고, 일하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기에 너무 좋았다고 한다. 아마도 일이 양육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돌파구 역할을 해준 듯 하다.

기억에 남는 양육중의 에피소드로는, 연년생의 두 아이들은, 쌍둥이 유모차를 태워 다녔고, 어느 날 우유랑 기저귀, 쌀 등을 사서, 유모차에 걸고, 버스를 갈아타고 집에 오는 중에, 유달리 체격이 큰 두 아이가 조금만 움직이면 유모차 채로 뒤집어 쳐서, 길바닥에 애들은 물론 쌀이랑 전부 쏟아 부어서, 서럽기까지 했던 일이 종종 있었다. 일본은 선진국인줄 알고 왔는데, 가까이 슈퍼도 하나 없고,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과, 동네 슈퍼는 택배서비스도 없고, 너무너무 살기 불편한 나라 일본이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한다.

또 하나, 처음 자전거에 애를 태우고 다니는 엄마들을 보면서 무슨 곡예를 하는 것 같아 신기한 눈으로 봤는데, 어느 날 보니, 자신이 자전거 앞뒤로 두 아이를 태우고, 짐들을 걸고, 심지어 우산까지 받치고 달리고 있는 모습이 되었더라고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옛날 얘기를 하듯 들려주었다.

◇신오오쿠보에서 사무실을 열기까지◇(新大久保で事務所を開くまで)

한국에서 사업을 하던 같은 계열의 일이었지만, 일본어가 안된다는 핸디로,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보였고, 인정받아서, 일본회사의 대리점을 경영하기까지 된다. 그러던 중, 한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던 남편과 함께 자신들의 사업을 시작해 보자는 계획을 세워, 남편의 무역업과 부인의 통신업을 겸업한 사무실을 오픈하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고객이 있는 신오오쿠보에 자리잡은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때마침, 시기적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시기였고, 고학년이 되면 한국학교에 보내고 싶었던 부분들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였다.

처음 신쥬쿠에 일하러 왔던 때는, 외국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신유리가오카에 비해, 한국인들이 많고, 점심시간이면 한국음식을 먹으면서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 만으로도 신쥬쿠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실상 삶의 주거지로서 살기 시작한 신쥬쿠는 생각했던 것 과는 많이 다르게, 지금껏 보지 못했던, 밤의 문화도 눈에 보이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다. 그리고 일 관계로 업인 고객들과의 인간관계가 일에서만 끝나지 않고, 더 세세한 부분까지 엮이고, 보이게 되면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터득해 나가야 하는, 진정한 삶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복잡 다양한 스트레스는 지금껏 좋기만 했던 신쥬쿠가 그렇게 매력적이게만 보이지는 않게 되는 계기가 된다.

◇ 언어문제 ◇(言語の問題)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일본에 왔지만, 어린 아이들의 양육에 바쁜 매일매일로 일본어를 배워야지라는 생각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일을 통해 실전으로 일어를 배우게 되고, 10 개월 정도 지났을 즈음엔 일에 관련된 회화는 일어로 할 수 있는 레벨이 된다. 지금 현재도, 일하는데 있어서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일상인데, 고객의 대부분인 한국인들과의 접객은 한국말로, 그러나, 그 일의 사무적인 마무리는 일본인과 일본어로 하는 패턴이다.

아이들의 학교 면담이나, 보호자 모임 등에 참가해서도 그렇게 불편함 없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언어적 감각이 좋은 것 같다.

◇ 자녀 교육 ◇(子どもの教育)

직장 동료로부터 전도되어 신유리카오카에서 신쥬쿠까지 매주 일요일을 전부 할애해서 예배에 나올 만큼 열심이었던 것은 단지 신앙심 때문만이 아니라, 두 아이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감을 느끼게 하고, 한국어를 잘 사용하길 바라는 교육적인 측면이 많았다는 PH 씨의 한국어에 대한 열정은 특별났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서는, 일이 우선시 되어, 조금은 선생님들께

일임한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 물론 두 아이들이 숙제랑 준비물 등 잘 챙기고 적응도 잘 해 주었기에 가능한 부분 이였지만. 개성이 강한 첫째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일본의 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한국학교로의 전학을 생각하게 된다. 원래부터 한국어공부에 열성이었던 점과, 남자아이로써 자신들의 뿌리가 어딘지 확실히 아이덴티티를 심어주고자 했던 부분도 작용했다고 보인다.

일본공교육학교에서 한국학교로 보내게 되었지만, 두 아이가 일본인이 가지는 장점인 성실함과 계획성, 그리고 기초에 충실한 점들을 잘 배우고, 한국인이 가지는 장점인 자유분방함과 독창성을 잘 살려서, 셋카쿠(せっかく: 모처럼) 일본에서 생활하므로, 두 나라의 장점들을 조화롭게 잘 배워서 삶을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는 바램을 덧붙였다.

◇ 장래계획 ◇(将来の計画)

한국에서 흔히들 어느 회사에 10년을 있으면 그 일에 프로가 되고, 20년을 있으면 자연스레 정상에 오른다는 말이 있듯이, PH 씨도 그 분야에서는 거의 20년 가까이 해왔으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잘 계획을 세워서 다운되지 않게, 너무 목표에만 치중하지 않게, 일본의 좋은 장점들을 배워서 금전적인 면도 잘 관리를 해서 운영해 나가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처음 일본생활이 양육과 겹쳐서 너무 힘들었기에, 잘 보지 못했던 일본의 좋은 점들에 눈을 돌리고, 이젠 좀 일본을 즐기고 싶다고 말한다. 언제든 아쉽지 않게 떠날 수 있도록 100엔 숍 물건이 대부분 이였던 자신의 삶에서, 이젠 일본을 타국이 아닌, 자신의 아이들이 길러지는 나라로서 좀더 애착을 갖고, 조화롭게 생활해 나가고 싶다고 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일본인이 가지는 장점과 한국인이 가지는 장점들을 잘 배우고 갖춘 아이들로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インタビュー 17>

JOさん（40代・女性）

「日本語が大好きでもっと本場の日本語を学びたい一心で留学、今は韓国語講師として言語への研究意欲を燃えつゝしている（日本語が 너무 좋아, 좀 더 실전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일본 유학을 결심. 지금은 한국어 강사를 하면서 언어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박사논문 연구 중）」

2010年8月7日、ソウル出身、韓国語講師、滞日17年目

インタビュアー：李 坪鉉（インタビューは韓国語で行われた）

◇ 일본에 오는 계기와 첫 일본생활◇（来日のきっかけと初日本生活）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 후 출판사에서 근무하던 중, 편집 중에 번역을 의뢰 할 때마다 필요성을 느끼며 배우기 시작한 일본어. 그 당시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다문화 이해의 첫걸음은 언어습득이다」는 문구로 더욱 언어습득에 대한 목표를 다지게 된다. 학창시절 배우던 외국어와는 달리, 시험에 대한 부담감 없이 즐겁게 배우기 시작한 일본어. 학습을 할수록 그 재미에 빠져들었던 일본어. 아플 때 조차도 일본어 학습 책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JO 씨. 그 열정 덕분인지, 배운지 일년 만에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취득한다. 그러나 더욱더 자신의 일본어가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일본인 친구를 사귈 때 자연스럽게 통할지 의문이 생기며, 좀더 능숙한 일본어를 배우고 싶고, 실전에서 경험하고픈 열망을 안고 주위의 많은 반대 충고를 뒤로하고 유학 길에 오른다.

나리따 공항에서 「リムジンバスはどこですか」라고 물었을 때, 친절히 가르쳐 주던 답변에, 자신의 일본어가 통했다는 기쁨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やった」라고 외쳤다며, 웃음짓는 JO 씨. 일본에서의 첫걸음은 이렇게 자신감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신쥬쿠에서 시작된 외국생활은 얼마 지나지 않아 향수병을 겪는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타문화였고, 집을 떠나 외국에 나와있다는 것 만으로 두려움이였다고 한다. 일본의 문화도 잘 몰랐기에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하며, 몇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한국의 교회에서 만났던 일본인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기쁜 마음으로 방문했지만, 持ち込みパーティ였기에 자신의 빈손이 너무 부끄럽고, 분위기도 썰렁해져서 당황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또, 공항 도착해서 일본어가 통했다는 자신감에 그 후의 모든 생활상의 수속과 전화 문의 등을 혼자서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화 상대방의 말은 완벽하게 다 못 알아 들을 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はい、わかりました」라고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랐다며 웃었다.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한번 묻든 것은 순간의 수치지만 묻지 않는 것은 평생의 수치다 라는 일본의 속담이 떠오른다고 한다.

◇ 신쥬쿠의 편리함 ◇(新宿という町の便利さ)

신쥬쿠는 JO 씨에게 있어 제 2 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한다. 처음 일본에 도착 후 리무진에서 내린 곳이 신쥬쿠이며, 그때 있었던 사쿠라 은행을 보고 참 예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신쥬쿠는 오래 산 동네이기도 하지만, 본인에게 있어 무엇보다 우체국, 편의점 등 24 시간 영업하는 곳이 많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한다. 꺼지지 않는 도시, 전자상가, 백화점, 토오큐한즈 등 생활의 편리함이 모여있는 곳으로 항상 뭘 해야겠다, 무엇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했을 때 충족이 안된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그건 신쥬쿠를 떠나보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터(한국식품점) 또한 큰 봉을 차지한다며, 처음엔 너무 한국적인 게 많은 신오오쿠보는 일본에 왔다는 실감이 나지 않아 재미가 없고, 마음껏 일본을 만끽하고 싶다는 마음을 충족시키기엔 부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역시 한국사람은 한국적인 게 가까이 있는 것이 좋아지더라는 깨달음을 말해주었다.

◇언어에 대한 학습열의가 한국어강사로 ◇(言語への 學習熱意 から 韓国語講師に)

일본어가 너무 좋아서 일본에 왔지만, 대학진학 상담 중 어차피 일본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일본어가 기본이므로, 다른 전공을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는 충고를 듣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을 떠올려,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에 오게 된 동기인

언어에 대한 관심을 벼릴 수가 없었기에 논문을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 왔다.

현재는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JO 씨. 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회화뿐만 아니라 한국문자의 특성 등 문법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강의 중이다. 학습자는 초급에서 5년 경력자까지 다양하며,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으로 남성분이 1할 정도이고 대부분이 여성 학습자라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로 제1위가 한국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조사결과가 그것을 반영해 준다.

신실한 크리스챤인 JO 씨는 언어에 대한 관념이 특별났다. 즉, 성경에서 언어는 원래 하나였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 바벨탑이 쌓이고, 여러 언어로 파생 된 것이므로, 원래 하나였던 언어는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언어를 흘러 놓으셨기에 일차적으로 갈라진 음성, 발음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원리하에 차이점들을 정리하면, 언어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언어 교수법의 개발에 힌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덧붙였다. 또한, 언어를 가르치다 보니,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안다는 것은 그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이지만, 습관과 문화 등을 알게 되는 지름길이라며, 현재 본인도 중국어를 학습 중인데, 강의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 장래 계획 ◇(将来の計画)

일본 유학 길에 올라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게 되고, 긴 시간 학교에서 연구자로 있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박사논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으므로, 환경이 주어진다면 언어에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서 끝을 맺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어 강의의 교수법, 즉, 좀더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 획기적인 한국어 교수법을 개발하고 싶다는 꿈을 말해주었다.

＜インタビュー 18＞

李某さん（30代、男性）

「ジャパニーズドリームの可能性に賭けて」

2010年8月12日、プサン出身、貿易会社経営、滞日歴約9年

インタビュアー：堀内康史

◇ 来日の経緯 ◇

大学進学にあたり、希望の大学に入れず、受かった大学に行くか、浪人しようか迷っていたところ、日本に住んでいるおじが、希望しない大学にいくくらいなら、日本に来なさい、と言ってくれたので、日本に行くことにした。ただ、兵役を済ませていないと、外国に行くことは難しかったため、高校卒業後軍隊に入隊し、兵役をおえてから日本に来た。

◇ 日本での学業と仕事について ◇

日本に来て、新宿にある日本語学校に2年間通い、都内の私立大学に入学した。

大学では、経営学部で貿易のことを勉強した。勉強のかたわら、実務も経験したかったので、4年間おじの貿易会社でアルバイトをしていた。

2年前大学を卒業し、そのままおじの貿易会社に就職した。その会社は、日本の商品を韓国に輸出したり、逆に韓国の商品を日本に輸入販売したり、そしてネット販売も行っていた。そこで2年間働いていたが、リーマンショックなどの影響で会社が危なくなり、社長から会社の見通しについて説明とアドバイスがあり、自分から会社を辞めた。その会社はやめた後数カ月後につぶれた。他の会社に就職することも考えたが、これまでの経験から自信があったので、1年間の準備期間を経て、昨年会社を設立した。以前の会社のときの取引先を引き継ぐこともでき、頑張っているところである。

◇ 現在の仕事 ◇

去年、自分の会社（株式会社）を設立、貿易および貿易関連業務を行っている。現在、貿易そのものを自分自身でも行っているが、主に行っている仕事は、ニッケル、銅などの貿易業務において、日本の会社と、

外国の会社（韓国以外も）との間を取り持つことであり、その際手数料収入を得ている。不景気なので、思い通りにならない部分もあり苦労はしているが、なんとか持ちこたえて頑張っている。もう少し頑張れば軌道に乗ってうまくいけるのではと考えている。

◇ 日本について ◇

韓国にいれば、やはり過去の経緯から、日本については良くないイメージを持つ人もいると思うが、自分の場合は、おじが日本にいて、日本の情報やモノが身の回りにあったせいか、悪いイメージはなかった。音楽CDや家電製品も日本のものだった。来日当初も、韓国と日本の違いにそれほど戸惑わなかった。

仕事をしている立場からは、日本ではサービス精神などが行き届いていて先進国だということを感じる。また、仕事上のチャンスも多くあると思っている。

以前日本人の女性と付き合っていたときに感じたことは、本音としてどう思っ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があった。ただ、これは文化の違いから来るものなのか、個人差なのか判断はむずかしいところである。韓国にも表向きは良いが、裏で何を考え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人はやはりいる。

日本で良くない部分は、警察官による職務質問である。特に悪いこともしていないのに、道路を歩いているときに職務質問をされ、外国人とわかると外国人登録証の提示を求められる。防犯には役立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が、それが何度もあるので、いやな気持になる。

◇ 大久保近辺について ◇

街を歩いてみると、大久保はやはり韓国人、中国人が多く日本人は少ないと感じていたが、最近は日本人の数が増えたのではと感じている。この調査で外国人の「顔」が見えないというが、大久保では、韓国人や中国人が多いが、韓国食堂では顧客は日本人である場合が多い。そこでは従業員の韓国人と客の日本人との間で交流もあると感じている。

◇ 将来について ◇

いま日本に在住 9 年で、これが 10 年を過ぎると（あと約 1 年で）、永住ビザをもらえるので、少なくとも永住ビザを取るまでは日本に居る予定である。ただ、自分の仕事のことからもあと 4, 5 年は日本にいたいと思っている。両親の面倒は、姉が韓国にいるものの、長男である自分がいずれ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自分が韓国に帰るか、あるいは両親を日本に呼び寄せるかしないといけないとは思っている。両親は日本語ができないが、新宿の周辺であれば、なんとかなるのではとも思う。しかし、今の両親の友人関係がなくなってしまうので、難しい。

日本での事業が本当にうまくいかなければ、韓国に帰って就職することも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が、韓国では 30 歳を越えるとこれまでの実績がなければ仕事を得るのは難しい。アメリカンドリームじゃないけど、ジャパニーズドリームみたいなものはあると思っている。日本のほうが成功の可能性のチャンスがあるので、やはりしばらくは日本で頑張りたい。

スケジュール／스케줄

2009年

11月 準備

12月 パイロット調査

2010年

1月 インタビュー開始

5月 成果公開 (ホームページ、印刷物など)

9月 成果公開 (ホームページ、印刷物など)

10月 中間報告会・中間報告書発行

2011年

3月 成果公開 (ホームページ、印刷物など)

7月 成果公開 (ホームページ、印刷物など)

10月 最終報告会・最終報告書発行

2009년

11월 준비

12월 예비조사

2010년

1월 인터뷰 개시

5월 성과 공개 (홈페이지, 인쇄물등)

9월 성과 공개 (홈페이지, 인쇄물등)

10월 중간보고회, 중간보고서 발행

2011년

3월 성과 공개 (홈페이지, 인쇄물등)

7월 성과 보고 (홈페이지, 인쇄물등)

10월 최종보고회, 최종보고서 발행

プロジェクトメンバー／프로젝트 멤버

- 渡辺 幸倫（わたなべ・ゆきのり／와타나베 유키노리）相模女子大学学芸学部講師／社会教育、言語教育
- 若園 雄志郎（わかぞの・ゆうしろう／와카조노 유시로）国士館大学 21世紀アジア学部非常勤講師／多文化教育、少数民族の教育
- 川村 千鶴子（かわむら・ちずこ／카와무라 치즈코）大東文化大学環境創造学部教授／移民政策、多文化社会論
- 宣 元錫（そん・うおんそく／선원석）中央大学総合政策学部兼任講師／社会政策、労働問題、移民政策
- 藤田ラウンド 幸世（ふじたらうんど・さちよ／후지타라운도 사치요）桜美林大学基盤教育院非常勤講師／社会言語学、バイリンガル教育
- 河合 優子（かわい・ゆうこ／카와이 유코）東海大学文学部准教授／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メディア論
- 李 坤鉉（い・ほひょん／이호현）早稲田大学教育・総合科学学術院非常勤講師、和洋女子大学人文学部非常勤講師／社会教育、文化間移動者の文化変容
- 武田 里子（たけだ・さとこ／타케다 사토코）明星大学非常勤講師・放送大学東京文京学習センター非常勤講師／地域社会学、多文化社会論
- 堀内 康史（ほりうち・やすし／호리우치 야스시）大東文化大学環境創造学部非常勤講師／社会学
- 吳 世蓮（お・せよん／오세연）早稲田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生涯教育、多文化教育の日韓比較

この研究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は：

연구에 관한 문의는 :

〒252-0383 神奈川県相模原市南区文京 2-1-1

相模女子大学 10号館 406 研究室 渡辺幸倫

watanabe-y@star.sagami-wu.ac.jp

プロジェクトのホームページ：

<http://koreannewcomersintokyo.web.officelive.com/default.aspxsPx>

発行日：2010年9月1日

無断転載を禁止します